

33대 총학 김흥민 · 김덕기조 당선

총대의원회 · 총여학생회 건설 경주캠 총학 투표 오는 29일

2001학년도 제 33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입후보한 김흥민(지교4)·김덕기(경영3) 조가 당선됐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투표결과 총 유권자 1만2천149명중 6천288명이 참여해 51.8%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89.5%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33대 총학생회가 세워졌다.
제 33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된 김흥민·김덕기조는 "지지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주동약의 죽마고우답게 학생들과 같이 학생회를 꾸려가

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총대의원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유승우(아시아지역4) 양과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전이지숙(회계2)·양김유미(영문2)조가 각각 78.8%, 57.2%의 투표율과 90.0%, 90.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채진석(경계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첫째날과 둘째날의 투표율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해 불안했지만 셋째날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학생회를 건설하게 됐다"며 매년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관련기사 2면(서울보도)
경주캠 총학생회 선거 투표는 오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불교대·인문대=원효관 수위실 앞 △자연대=자연과학관 1층 로비 △상경대·법정대·관광대=진흥관 수위실 앞 △한대의대=한의학관 식당 앞 △의과대=의학관 1층 본과 4학년 학습실에서 실시된다.
한편, 총여학생회 정·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현(고미사3)·한영은(정보산업3) 조가 투표 결과 63.8%의 투표율과 86.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사진/김윤미 기자

지난 24일 새벽 서울캠 2001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마무리하는 개표가 정보문화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지면안내

- ▶ 생협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5~7면
- ▶ 독립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생협을 찾아 식당과 복지매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생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 ▶ 대우차 부평공장 노조를 찾아서 4면
- ▶ 독립문화가 당당해진다 10면
- ▶ 티베트 불교를 바로 알기 위하여 11면



노래와 수형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마음이 들쭉이는 것을 우리말로로는 '들뜸'이라고 하며, 불교용어로는 흔히 '도거'(掉擧)라고 한다. 특별한 날을 앞둔 전날밤에 사람들은 대개 설레고 들뜨고 흥분되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가볍고 편안한 마음'(輕安)은 대선지법(大善地法)에, '도거'는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소비대중문화의 사회 속에서는 이 도거의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 경기를 운동장에서 직접 구경하거나 텔레비전 중계를 시청할 때, 우리는 스릴도 느끼고 통쾌함도 느끼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들뜬 기분이 된다.

또한 콘서트나 노래방에 가셔도 우리는 대개 들뜬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콘서트에 가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요. 처음에는 잘래도 소리지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갔는데도 일단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지를 수가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좋은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큰 감동으로 우리를 승화·정화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많은 애종의 노래들은 대부분 우리를 들뜬 기분이 되게 만든다. 어떤 노래들은 우리의 일차적인 거친 감정을 촉발시켜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번뇌가 되고 마침내 소모품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노래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미심계(沙彌十戒)나 팔관제(八關齋戒) 등에 "노래하고 춤추며 풍류 잡하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노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자제력과 정결한 영혼을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스토니브룩대 의료원장 본교 방문 · 교류 논의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의료원장 Thomas M. Biancianiello 교수가 본교를 방문한다.
Biancianiello교수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머무르며 양 대학의 의학분야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에 조인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9회 동국인의 밤' 다음달 14일 개최

총동창회(회장=권노갑)는 다음달 14일 캠퍼스서포터즈 2층 큰禮堂에서 '동국인의 밤'을 개최한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본교를 빛낸 동문을 선정하여 △동국문화 대상 △감사패 △공로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해외자매대학 문화연수 삿포로학생 10명 방문

2000학년도 해외 자매대학과의 학생 단기 문화연수교환계획의 일환으로 일본 삿포로대학 대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한다.
일본 삿포로대학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불교영역영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사회학과 등 수업 참가 △서울 시내 관광 △본교 학생과 한국어 연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연수기간 중 3일은 지난 학기 일본을 방문했던 본교 문화연수생 10명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새터사고 해결을 위한 부상학생 모임 "물질적 보상보다 따뜻한 관심"

서명운동 통해 되새기는 계기 마련

'새터사고 해결을 위한 부상학생 모임'(대표=홍운선·전자공 휴학)은 지난 22일부터 3일간 한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새터사고 부상자 처리 문제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된 서명운동에 4천37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부상학생 모임 대표 홍운선군은 "학생들이 새터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며 "학부모협의회와 학교 사이에 계속되는 의견차이를 해결점을 찾지 못해 부상학생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상문제가 대부분 해결됐으므로 이제 마무리할 단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창학 과장은 "37명의 부상학생들이 모두 퇴원했고, 학교는 부상학생들을 위해 간병비와 특진비를 지급하고 부상학생들의 학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상학생 한아진(철4)양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정성스런 전화환통, 편지한통이 부상자 가족에게 더 소중하다"며 "그동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 학교측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부상학생모임과 새터사고 문제를 마무리지으려는 학교측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 부상자들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다. 학생과 학교는 이제 막 학교로 돌아온 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측은 새터사고의

김해진 기자
atom@dongguk.edu

김진철 이사장 사퇴 표명

생협 28차 이사회 오늘(27일) 열려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의 김진철 이사장이 지난 20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생협 제28차 이사회가 오늘(27일) 오후 4시 생협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생협 추경예산 안 심의 △이사장 사표 수리여부 △생협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0차 생협독립법인 추진위원회가 연기돼 오늘 오전 8시 30분 상록원 3층에서 이사회 구성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생협 김진철 이사장은 추경예산안 임의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5~7면

2001학년도 대학박람회 참가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생선발실은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태평관에서 열리는 대학박람회에 참가한다.
전국 73개 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EBS와 한국대학신문 후원으로 열리며 대학별 부스를 설치하고 대학을 홍보하게 된다. 학생선발실은 팀장급으로 구성된 홍보위원 6명과 본교 재학생 6명을 아르바이트 도우미로 선발해 대학박람회를 대비했다. 이들은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본교 부스에서 학부모, 교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한편, 학생선발실은 이번주 2차례에 걸쳐 수험생들이 본교를 직접 찾아 둘러보고 입시에 관해 설명을 듣는 캠퍼스 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일산 백신과와 동대부고 등이 참여하며 캠퍼스 투어 외에도 교양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시 성낙영 외 5명 합격

지난해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던 행정고등고시에 금년에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6명이 최종합격했다. 합격자는 △성낙영(물리92졸) △권준율(법4) △조윤오(경영98졸) △하인호(경영98졸) △이은상(경영4) △장남희(경제96졸)이다.

백경남 위원장 초청 '21세기와 여성' 강연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21세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이번 특강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백경남 위원장(본교 정의와 교수)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여성의 건강한 자의식 형성 및 역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제4차 불상 봉안식 오는 29일 대각전

'제4차 불상 봉안식'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주년 기념 문화관 대각전에서 열린다. 불교중앙법원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봉안식은 △불불 헌공 △축원 △경과보고 △정법가 △삼어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되며, 약 400여명의 신도가 불상 봉안에 참여할 예정이다.

알림

이번 제1309호가 2000학년도 2학기 중강호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310호는 오는 2001년 1월 1일자로 발행합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동대신문 50주년

마 · 감 · 임 · 박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이 걸어온 50년, 역사의 한 장에 기록될 소중한 시, 소설, 학술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 본상 및佳作 사회과학상 - 본상 및佳作 자연과학상 - 본상 및佳作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지역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 시상 : 인문과학상 - 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 시상장표표 : 2001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모집분야 : 시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 본상 및 장려상
- 응모요령 :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응모지역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 시상 : 시부문 -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 시상장표표 : 2001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대신문사 02)2260-3491-2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중도, 24시간 철야 개방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철야개방을 실시한다.

철야개방은 도서관 4층 제3열람실만 해당되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외부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도서관은 2001학년도 특별전형 접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12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1층 제1열람실을 휴실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학점교류 접수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한국의국어대학교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해 2001학년도 1학기 국내 학점 교류신청을 오는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학점교류는 최대 17학점까지 인정하며, 2001학년도 등록예정자 중 4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학신청원 △수학계획서 △재학 및 성적 증명서를 각각 1부씩 지참해 국제교류실에 제출하면 된다.

대교협, 학문분야 평가 오는 28일 평가단 내교

한국대학교육협회의회가 실시하는 '2000학년도 학문분야 평가'의 실사평가를 위해 오는 28일 평가단이 본교를 방문한다.

본교는 이미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서면평가를 거쳤으며, 현지 방문 평가를 앞두고 심실 실습실 기자재를 교체했다.

평가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중순이 지나 있을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세미나 개최 다음달 1일 덕암세미나실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와 한국의 생존'을 주제로 다음달 1일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사회과학연구원(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진철 원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군사, 정치 분야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사회과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1학년 전공결정 오는 29일부터

단대별 세부기준 마련·전공별 차등인원 선발

2000학년도 1학년 재학생 전공결정이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다.

이번 전공결정은 각 단과대별 신청 자격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고 전공배정 차등인원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전공을 결정할 학생에 한해 복수전공 이수신청도 가능하다. ▶〈표〉 참조

지난 학기 본교는 △단과대별 신청자격 제시 △3차례 선택기회 부여 △시기별 전공배정 인원 차등 등을 내용으로 전공결정제도를 개정했다. 이는 학문적 특성을 반영해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능력의 심화기회를 늘리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전공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공과대는 자격기준을 완화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영대는 4가지 엄격한 자격기준을 제시해 학생들이 좀더 시간을 두고 전공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전공배정 인원의 전공별 인원한도는 전공인원의 범위를 최대 150%까지 한정할 가운데 차등을 두었다. 따라서 문과대는 정원의 50%, 경영대와 생과대는 정원의 80%, 그 밖의 단과대는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번에 전공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은 3학기를 이수하게 되는 내년 6월말 잔여석에 한해 전공을 결정하면 된다. 이러한 차등기준 가운데 특히 문과대는 이번에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100%는 내년에 선발한다. 이는 문과대가 인기학과와 비인기 학과의 지원폭이 큰 것을 감안, 3개 학기 동안 전공을 충분히 탐색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새로 바뀐 전공결정제도를 많은 1학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대비해 전공을 결정하기 전 일부 단과대 혹은 학과별로 전공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이과대 전공설명회에 참석했던 이미연(이과대1) 학생은 "전공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게돼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기정(이과대1) 학생은 "전공신청 자격을 미리 알지 못해 자격에 미달, 전공결정을

〈표〉 대학별 전공 신청자격

대 학	전공 신청 자격
불 교	① 평점평균 2.50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③ 대학지정공통과목 3강좌 이수
문 과	① 평점평균 2.50이상 ② 35학점 이상 취득
이 과	① 평점평균 2.50이상 ② 35학점 이상 취득
사회과학	① 평점평균 2.00이상 ② 35학점 이상 취득(단 경제학 전공 희망자는 30학점)
경 영	① 기초공통과목 3과목 이수 ② 기초특화과목 3과목중 2과목 이수 ③ 평점평균 3.00이상 ④ 30학점 이상 취득
생명자원과학	① 평점평균 2.50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공 과	① 30학점 이상 수강 신청자
정보산업	① 평점평균 2.70이상 ②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예 술	① 평점평균 2.00이상

할 수 없게 됐다"며 전공신청 자격 기준이 늦게 마련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2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공을 결정하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남수영(문과대1) 학생은 "수능시험 2교시를 마치고 대학입학원서를 쓰라는 것과 같다"며 "결정당사자인 1학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

는 "2학기가 끝나면 방학동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안나와 필수적인 학업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이 어렵다"며 "수강신청시 본인의 전공교과목을 신청해야 정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얼마전 2학년 재학생들의 전공결정이 끝나 뒤 전공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에 1학년들의 전공결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은선 기자

회전무대

특강

O...주제="음식물 반입, 그것을 알려주마!"

첫째, 학생이 직접 나가서 기방에 음식물을 담아온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크기 이상의 기방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임을 가장한 철야방이 태연하게 교내로 들어온다. 이때는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이 요구된다.

셋째, 철야방과 학생들이 중간에서 접선한 후, 음식물을 반입한다. 가장 교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위아저씨의 눈을 피해야하는 위험이 있다.

건전(健全)서

O...건전지는 누구를 위하여 충전하는가.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건전지 충전기를 '불건전' 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전된 건전지를 주인이 찾아가기 전에 틀려 '슬쩍' 하는 학생들 때문이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건전하지 못한 자는 건전지를 만지지 마시오!"

수난시대

O...컴퓨터 수난 대서사시(!?) 컴퓨터실습실의 컴퓨터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데.

이는 화면이 절전모드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 컴퓨터 전원이 꺼져있는 것으로 착각해 전원 스위치를 누르기 때문이라고.

비정상적인 종료 때문에 펜터업급 컴퓨터의 성능은 점점 16비트로 떨어진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생들의 무지 속에 컴퓨터는 단축비(非)연수(壽)"

흡연 고수

O... "금기에 대한 도전인가, 신념의 고수인가"

동국관 5층에 흡연실이 신설됐음에도 여전히 복도나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다는데.

이는 학생들의 요구로 소중한 학내 공간을 할애해 설치한 흡연실을 무색케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동국흡연실 개방. 단, 자신의 위치를 고수할 줄 아는 흡연의 고수만이 이용가능"

연장선거 3개 단대 학생회 건설

후보 미등록 6개 단위 내년 3월 선거

2001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자 등록이 저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연장했다.

그 결과 3개 단과대가 등록했으며, 지난 21일부터 3일간 중앙기공과 함께 단과대 선거 투표를 실시했다. 선거를 치른 불교대, 경영대, 공과대 학생회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 김대수(불교3)·이예지(불교3)조가 6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 반대 3%로 불교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경영대 경영대 학생회장에 임후보한 김성호(경영학부2)군이 52.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2.8%, 반대 6.3%로 당선됐다.

공과대 공과대 학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황정임(전자3)양이 5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7.4%, 반대 6.3%로 당선됐다.

이 밖에 출마자가 없는 이과대, 법대, 사과대, 정산대, 예술대 학생회와 야간강좌총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로 미뤄졌다.

본교 홈페이지 3차 개편

한번의 접속으로 다양한 학사 정보

본교 홈페이지가 다음달 1일 3차 개편된다.

성적조회, 학번조회 등을 할 때 기존에는 매년 각각의 항목에 대해 로그인을 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한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학사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Q&A 분류 개선 △졸업학점 조회 △지도 교수 확인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한편,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1개였던 기존의 수강신청 서버를 4개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실장은 "원격 수강신청이 빨라지는

등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불교문화연구원(원장=목정배·불교학)은 다음달 8일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예초를 통해 본 서역불교'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왕오전축국전의 저자 혜초의 행로를 통해 8세기경 서역불교를 재조명하며, 전 단과대 정수일(사학)교수가 고대 동서 실�크로드 교역사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1.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함.

2. 시행시기 : 2000. 12. 1(금) ~ 12. 22(금)일 중.

3. 대 상 : 2000학년도 2학기 개설 전체 강좌.

4. 응답자격 : 200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5.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gu.ac.kr)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질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6.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그 응답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히 응답하기 바람.
나.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람.
다.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0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사회봉사 단원 모집

2000학년도 겨울방학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대 상 : 재학생, 교수, 직원

2. 신청서 접수기간 : 2000. 12. 4(월) ~ 12. 8(금)

3. 봉사활동 기간 : 2000. 12. 26(화) ~ 2001. 2. 28(수)
※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4. 학 점 인 정 : ■ 겨울방학 기간 중 33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 학점인정 시기 : 2001학년도 1학기
(※단 현재 4학년 중 2001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는 학점인정 불가)
※ 사회봉사 교과목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5. 점 수 처 : 동국참사랑봉사단 (본관 3층 학생복지실내 ☎2260-3049)

6.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60여개 기관 (봉사활동내용: 350여개 프로그램)

- 봉사대상 기관 및 봉사활동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참사랑봉사단

생활협동조합 창립3주년 기념 행사

1. 행사 목적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3주년 창립일(11. 27)을 맞이하여 생협을 이용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 각 매장에서 특별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합니다.

2. 직영매장 행사 내용

가. 식당(11.27 당일행사)

구분	사업장	제공메뉴	판매가	기준판매가
1	상록원식당(교직원)	뷔페	₩3,500	₩7,000
2	상록원학생식당	육개장, 불고기덮밥	₩700	₩1,500
3	상록원 양식	치킨가스	₩1,200	₩2,500
4	상록원 분식	분식일체	₩500	₩1,100
5	동국관 학생식당	갈비탕	₩700	₩1,500
6	동국관 분식	분식일체	₩500	₩1,100
7	이리수	분식일체	₩500	₩1,100

나. 매 점(11. 27 당일 행사) : 품목별 할인 판매(과자류, 음료일부 50 %)

다. 서 점(11. 27 당일 행사) : 전 서적 20% 할인 판매.

라. 안 경 점(11. 20부터 행사중) : 안경 20% , 렌즈 10%.

마. 잡 화 점(11. 27 ~ 12. 1) : 5%이상.

바. 컴퓨터매장(11. 27) : 5%.

사. 사진관(11. 27) : 10% (필름은 왕창세일)

생활협동조합

소액주주운동의 필요성 논단

제도 의무화를 통한 부패경영 개혁 필요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IMF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고 있는 듯이 보였고 개발도상국의 우등생이란 찬사를 받았던 한국경제가 이제는 연속되는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불황의 시기를 맞아 수익창출능력을 상실한 과잉 투자된 자본의 정리절차 즉,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수익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경우 당면한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는 재벌의 과도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부실이 발생 하는 경우에도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의 신속한 교체, 노사합의에 의한 합리적 인력 조정, M&A와 시장에서의 퇴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평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구조 속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IMF 관리체제를 맞았던 것이다.

정경유착에 기초한 재벌경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의 투입에만 의존해 연명했기 때문에 제 2의 경제 위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110조원 외에 추가로 40여 조원의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돼야 한다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경유착에 기초한 재벌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며,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벌들과 아합한 정치권 역시 재벌과 공범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은 외면한 채

공적자금만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재벌개혁 위한 소액주주운동

재벌(금융)개혁의 핵심은 재벌과 금융기관 경영진으로 하여금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들어 정경유착의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주주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현재 재벌총수들은 계열사 지분을 빼면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시키더라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하고 봉건적인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정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러 금융기관과 기업을 감시해 왔다고 하나 이제 민주주의의 정치와 개방경제를 기초로 하는 나라에서 초법적 감시란 불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경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는



김석연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 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계속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부패사건들에서 보듯이 감독 기관 자체가 무능하거나 부패해가까지 하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만 한다. 최근 참여연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위해 입법청원한 것도 바로 이해관계자인 주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자본주의 운영시스템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그리고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금융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재벌의 로비에 밀려 이를 모두 포기하고자 한다. 정치권이 개혁을 포기한 지금 과연 한국경제개혁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생협 학생복지 위해 거듭나라

학교는 이제 거대한 소비의 장이다.

학내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7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유통과 소비를 하나로 묶어 '복지'라는 개념에 '경영기술'을 추가한 것이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구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기관이다.

이러한 생협의 생명은 무엇보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에 열린 생협 이사회에서 학생대의원들은 생협 사무국이 예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생협 이사장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협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생협 이사회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이라는 믿음은 커녕 불신만 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본교 생협은 그 건설과정은 물론 내실 있는 운영과 탄탄한 경영으로 타 대학에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간의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생협의 최대 수요이자 최대 수혜자는 조합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방만한 경영과 관료적인 운영으로 정작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생협은 영리 목적 단체가 아님에도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잉여금을 남기기 보다 조합원인 학생들이 제품을 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협의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생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일반 조합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생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작 해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불만 사항에 답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밖에도 △식당의 이용시간이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으며 △서점과 각 매장의 판매 물품가격과 휴게 공간 부족 등에 대한 학생들의 계속되는 불만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립법인화는 학교법인의 산하에 있으면서도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구가 아닌 임의조직에서 학교 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생활협동조합추진위원회는 교수·직원·학생 등 이사회와 구성비를 두고 9차례에 걸쳐 논의하여 왔으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논의 초기에는 학교측 대표를 포함시켜 학교가 책임성을 갖고 생협 운영에 임하겠다는 학교측 입장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생협직원의 이사회 참여는 적당하지 않다는 교수회측의 문제제기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문제는 생협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언젠까지 시간만 끌고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인 만큼 모두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 생협은 생협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비판을 경허한 자세로 받아 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독립법인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단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하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0년 전국 대학 선거 분석

특화된 선거운동 '반짝쇼' 될 것인가?

신뢰회복 여전히 과제 ... 선거세척 준수로 파행선거 극복

서울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전국대학 학생회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도 역시 선거운동원들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50%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지만,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이 시도되는 등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각 선본의 노력이 돋보였다.

2000년 대학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성화 △비운동권의 약진 △선거운동방식의 특화로 집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행선거 △상호 비방 △연장 투표 실시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주목할 만 하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학내 선전과 함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생방향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서울대는 대학신문, 교지관악, 이공대 신문 등 학내 7개 매체가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 선본의 선거정책에서 선거문화까지 다각적인 보도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후보자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선거 정책과 공약사항 등 정보를 제공했으

며, 게시판을 통해 정책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선거운동 방식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선전물을 돌리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특색 있는 선전을 벌였다. 본교 총학생회 김홍민·김덕기 후보는 최근의 통일 화해무드를 반영하는 듯, '공동경비구역 JSA'를 패러디 해 정·부 후보가 각각 인민군복과 한국군복을 입고 유세를 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이 밖에, 전국대학에서 소위 비운동권 선본들이 지난해에 이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선거 결과를 보면 25일 현재 한총련계열(NL) 30개 대학, 좌파(PD)계열 7개 대학, 비권이 13개 대학에서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 계열은 이적규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당선되었으며, 남아있는 대학의 선거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한총련계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해 비운동권 학생회가 한총련계열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본교 학생회 선거투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단과대 건물 로비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비운동권 성향의 대학에서 한총련 계열 선본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통일 문제에 다소 무관심했던 학생들에게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탁한 선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연세대는 한총련 계열의 '청년 개척자 통일연세' 선본과 전학협 계열 '루트 3' 선본이 2강 구도를 그리며 진행되고 있던 선거는 투표를 하루 끝난 상황에서 휴학생 선거운동에 대한 중선위의 유권해석 문제로 '루트3' 선본이 자격을 박탈당해 투표도중 선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선거

가 무산되고 말았다. 중선위의 일관되지 못한 유권해석이 문제가 돼 학내 운동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선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연장선거나 휴학생 선거운동 등 매해 선거와 함께 제기된 선거운동세척에 대한 논란은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키웠다. 선거기간 동안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반짝쇼'가 되지 않도록 학생회 불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김진아 기자 pazama@dongguk.edu

Table with 2 columns: Role (Editor, Publisher, etc.) and Name (Song Seok-gu, Yang Young-jin, etc.)

동약로

도망자



지난 23일 경주캠 백상탑 앞에 본교 언론 삼사가 모였다. “잠시 후 이곳 백상탑에서는 2001학년도 총학생회 입학보좌 공청회 및 좌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은 학생회 및 자치기구 대표들은 속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지만 나타나지 않는 참석자들 때문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안내방송과 대자보를 통해 백상탑을 찾은 학생들도 텅 빈 좌석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돌린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지금부터 공청회 및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는 시작했지만 총학생회 정후보자를 제외한 학생회 및 자치기구 임원들의 빈자리는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자 총학생회 후보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답변한다. 행사 도중 18대 총대의원회 당선자와 현 총여학생회 회장이 참석하자

목땀이 지켜보던 학생들도 그간의 의혹에 대해 질문하면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한편에서는 “정작 나와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잖아. 이런 좌담회는 하나하나 아냐?”라며 폄하하는 시선을 보낸다.

질의 응답후 공청회는 끝났지만 지난해 총학생회를 대신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현 총대의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 간부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을 지지해준 학생들의 관심과 평가를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태도이다.

벌어진 학생들의 관심은 장황한 사업계획을 내세운다고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에 앞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해를 책임질 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정미혜 기자

kal@mail.dongguk.ac.kr

대우차 부평공장 노동조합을 찾아서

대우차는 “달리고 싶다”

회사 정상화 위한 4자 협의체 마련해야

생산을 중단한 채 멈춰버린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은 그 엄청난 덩치에도 불구하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대우자동차는 지난 8일 최종 부도가 발표된 후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총 7천700명의 직원 가운데 출근한 약 1천 여명의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비워둔 채 노조사무실에 모여 앉아 오후에 있을 노조 대의원의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썰렁하게 비어있는 작업장은 노동계에도 매섭게 찬바람이 불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노동자 집단이기주의(?)

대우차는 지난달 10월 31일 △3천500명 감원으로 인건비 감축 △재료비 절감 △광고비를 비롯한 경상비 축소 △자산 매각 △판매가 조정 △연구개발비 축소 △해외법인 구조조정 등 2001년 자금계획을 9천억 원 대로 하향 개선한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우는 채권단이 내놓은 3천500명 감원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안을 노조가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끝내 부도처리 되고 말았다.

“부도는 노조의 동의안 거부가 원인인가”

여론은 대우차 노동자들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어떻게든 부도는 막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채권단이 제시한 동의안에 노조가 합의하지 않고 강경 대응했기 때문에 최종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에 대해 대우차 노조 김성갑(39) 수석부위원장은 “부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은 채 기업 생존의 논리만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무조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11.3 특별 발언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졌고,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우 자동차 측은 현장 조합원을 ‘빨리 퇴직하지 않으면 아예 퇴직금을 못



대우차 부평공장은 지난 8일 최종부도 발표 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받는다’라거나, ‘집회 참여하면 먼저 잘린다’는 식으로 노조에서 떼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처럼 축소 위주의 생존전략에만 매달릴 경우 대우차의 기업 가치는 더욱 떨어져 독자 회생 가능성을 거의 상실한다는데 있다.

연쇄도산 위기우려

대우차 협력업체는 1·2·3차 협력업체를 모두 합해 1만여 개, 종업원 수는 60만여명이다.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채무가 동결돼 협력업체 연쇄도산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자동차 회사는 끊임없이 신형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2년 뒤에도 판매가 계속되길 바라기는 힘든 상황인데 법정관리 아래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더욱 힘든 실정이다.

대우차 노동자 김호태(37)씨는 “임금 3개월 치를 못 받아 자식들 학원도 못 보내고 당장 생활이 안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쉬는 날은 부친의 종합경기장 공사현장과 근처 대우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루 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15년간 근무한 강석희(41)씨는 “지난 3년 동안 대우차 노동자들의 70%가 휴무 상태에서 임금을 동결했고 지난 3개월 동안은 급여를 받지 않고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며 어렵지만 회사를 위해 양보해왔던 노동자들의 사정을 설명했다.

임금체불은 500%에 달하고 있고, 집에 있는 가족들의 하소연은 하루도 끊일 날이

“밀린 임금때문에 가족들 하소연 끊일 날 없다”

없다고 한다.

노조는 하루 빨리 공장을 정상화시키고 판매대수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노조는 노조·사측·정부·채권단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영혁신과 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 대안 필요

최종학(33) 노조 대변인은 “선진국들이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고용효과 때문”이라며 “GM이 들어오면 현대나 기아는 자본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장위의 단기적 이해타산 보다는 미래를 위해 자동차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차 노동자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가 보장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온라인 시위 정당성 논란

‘클릭’으로 세상을 바꾼다

한총련·시민단체 온라인 시위 벌여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면 ‘온라인 시위’를 함께 하자는 배너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위는 지난 7월 20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의사 표현 방법 중 하나였던 온라인 시위는 현재 여러 네티즌 집단과 시민단체들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한총련(의정=이희철·조선대)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와 각 정당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온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항리 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전만규)는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미군 사당국의 홈페이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9월말에 발표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는 이러한 온라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온라인 시위는 ‘사이버 연좌시위’와 ‘항의 메일 보내기’로 분류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연좌시위’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브라우저의 새로고침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과부하를 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 힘들다. 마치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과 같다.

얼마 전 개설된 정보통신 질서확립법 반대사이트(www.freonline.or.kr)의 운영자 문성준씨는 이러한 온라인 시위에 대해 “접근권이 없는 사람이 특정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해킹’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온라인 시위 관련 조항은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헌법상대로 대한 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김기중 변호사는 “오프 라인에서의 시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시위 역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질서보호법 반대 공동행동’에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네티즌의 67%가 ‘온라인 시위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해 네티즌의 대다수가 온라인 시위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시위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작게 들고 지역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쉽게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유독 게시판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시위는 게시판에 기록 흔적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네티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띤다. 따라서 온라인 시위가 갖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앞으로 벌어질 정당성 여부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손상민 기자

ne08292@dongguk.edu

집단소송·집중투표제 의무화 운동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기업자산의 부당한 유출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전체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는 그간 주주총회 의결에서 소외됐던 소액주주에게 이사선임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기업경영에서 소외된 소액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가조작·내부거래 등으로 손해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두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한 상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집단소송제는 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제출·통과를 위해 온라인(http://www.cleans-tock.or.kr)상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경주캠 생활협동조합 설립

후생복지, 대학구성원간 협동이 지름길

재단 전입금·등록금만으로 복지시설 확보 어려워

대학복지 현황과 문제점

2002년 입학 부족현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생복지사업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학후생복지사업은 대학 구성원의 소비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후생복지에 대해 관심이 낮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대학 구성원의 생활욕구에 맞춘 새로운 복지사업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과 대학간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와 교류도 없으며 대학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각종 생활물품 구입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일본은 5백 65개 4년제 대학 중 1백 62개 대학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설립·운영해 성공적인 활동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협이 주는 혜택

생협이란 학내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들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 구성 스스로 출자해 학교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주체가 되고 생활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가는 협동 단체다.

이렇게 구성된 생협은 생활물품의 공동 구매·공

급활동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이윤추구와 낮은 질의 상품으로부터 학생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일상 소비재를 보다 좋은 품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학자금 지원 △운동 중 부상에 대한 치료 공제 등의 각종 공제 활동과 △지 방 학

대육이 사업 이익금은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장학금, 각종 복지시설 보완 등 학내에 재투자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이러한 생협은 대학의 구성원 누구나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생협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조합원이 아니라도 대학



생의 각종 귀향 사업 △하숙과 자취에 대한 정보제공 △여행알선 업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와 학원 알선 사업 △각종 특강 사업 등 조합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활동으로 대학구성원들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생협이 주는 혜택은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매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는 차별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생협의 필요성

과거에는 복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대학 구성원

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였다.

그와 달리 생협은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협의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며 학내 복지와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구성원들 공동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대학에서 한 사람이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과정에서 대학의 제반 복지시설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대학 재정은 충분한 복지 시설을 확보하기 힘들고 그나마 존재하는 대학의 복지시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시설향상은 대학 재단만이 해결할 수도 없고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속에서 협동의 힘으로 대학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1999년 8월에 소비자 생협법이 제정돼 법적인 설립근거로 만들어진 생협은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며 대학후생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경주캠, 질적복지 향상위한 생협건설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 조직기구

대학생협은 대학 내에서 만들어지는 생협이므로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들이 협의하여 설립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생협이 건설되는 절차를 보면 우선 생협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대표들 간의 합의와 시설투자 등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한다. '생협발기위원회'를 구성해 설립 취지문과 조직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최상 법인 정관과 시안을 만들며 생협조직체제와 운영 등 전반적인 것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창립회의를 열어 정관과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이사장, 사무국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구성된 임원명부와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중앙회에 회원 가입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회 이사회는 승인을 한다.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 후 30일 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대학생협은 구성되는 것이다.

경주캠은 식당, 자점, 매점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지공간의 대부분이 외부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자체적인 관리가 배제된 이런 운영은 기업 내 이윤추구를 위해 이용자들의 질적 복지를 신경쓰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학생들은 자체적인 의식 개선으로 그들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

현재 경주캠에서 생협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깨어있지 않은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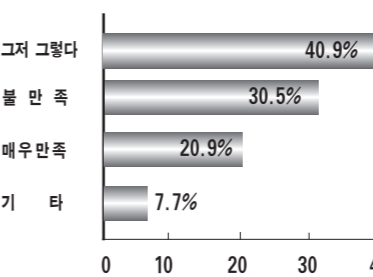
방식을 지닌 학교 구성원들과 운영상의 적자를 두려워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관계자의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유동성이 많은 방중 운영은 경영능력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등 적극성을 보인다면서 많은 이익금이 생겨 학교 구성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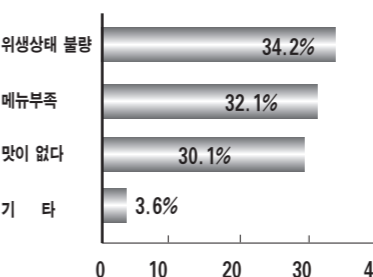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소라 기자 bbang@mail.dongguk.ac.kr

<학생회관 패스트푸드점 만족도>



<교내 식당 문제점>



▲ 위 그래프는 시립 교자편집위원회에서 임석대동제 기간 중 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학사제도 주요변경 내용

- 1. 주요개정항목**
 - 가. 복수전공 이수와 관련한 부전공제도 도입 (학칙 제26조 4항, 학사내규 제20조 4항)
 - 나.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 졸업연기제 도입(학사내규 제21조 3항)
 - 다. 복수전공 이수포기제 도입(학사내규 제20조 3항)
 - 라. 연계전공제 변경(학사내규 제19조 2, 3항)
 - 2. 주요개정내용**
 - 가. 부전공제
 - 해당학과(전공)의 복수전공교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나 졸업연기를 하지 않고 단일 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해당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나. 졸업연기제
 - 복수전공 중 한 전공이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나머지 전공 이수때까지 2개 학기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 졸업연기는 복수전공 이수중인 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요건 전공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생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다. 복수전공 이수포기제
 - 복수전공을 지원하여 2개학기 이상 이수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전공 포기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전공만 이수할 때에는 단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 라. 연계전공제 변경내용
 - 제2 혹은 제3전공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지원 시기 및 절차, 학점 이수,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 이수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경주캠 교무처

제1차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건강한 성격, 원만한 대인관계,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위한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내 용** : 집단상담이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이(7~15명) 모여, 전문가와 함께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은 자기각성, 대화기법, 가치관의 명료화, 자기노출, 자신에게 타인이 어떻게 비추는지 의견 주고받기(포드백)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연 제** : 12월 18일(월)~12월 20일(수) (겨울방학 시작 즈음) 오전 10시 ~ 오후 5시(3일간 11회 집중과정)
- 3. 신청기간** : 11월 20일~12월 15일까지
- 4. 신청장소** : 원호관 2층 학생상담실
- 5. 대 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선착순 15명)
- 6. 참가비** : 1000원
 - *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6호'를 참고하세요. (각 건물 신문배부대)

경주캠 학생상담실

동계방학 금강생활관 개방

본 금강생활관에서는 2000학년도 동계방학 중 다수 관생들의 생활관 숙식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생활관을 다음과 같이 개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현 재학생 및 일반 학우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방기간** : 2000. 12. 26(화)~2001. 2. 16(금)
 - 최소 2박 3일 이상 신청 가능
 - 12. 26(화) 오전 10:00부터 입사철차를 통하여 입실 완료 할 수 있으며, 12. 29(금) 저녁 6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임.
- 2. 신청기간** : 2000. 12. 1(금)~12. 8(금)
-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전화접수, 홈페이지(http://www.kd.dongguk.ac.kr/~domi)접수 후 입사비 납입(직접, 온라인)
 - *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관 시 전액 정산하여 환불하며, 생활관 수칙 미준수로 인한 퇴관 시는 입사비중 식재료비만 정산하여 환불함.
- 4. 입사비 안내**
 - 가. 관 리 비 : 1인 1일 숙박 기준 : 8,500원
 - 나. 식재료비 : 1식당 2,000원 (조식, 석식은 의무식으로, 중식은 티acket로 함)
- 5. 선발인원 및 방법**
 - 가. 선발인원(2인 1실 기준)
 - 남학생(보현동) : 88명(여학생 전용)
 - (미류동) : 각종 행사 전용
 - (관음동) : 96명(남학생)
 - (문수동) : 100명(남학생)
 - 관생 총계 : 284명(남:196명, 여:88명)
 - * 학생 인원이 일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일 경우는 여학생동(연화동) 개방
 - 나. 선발방법 : 2000-2학기 재관생 및 일반학생 선착순
- 6. 유의사항**
 - 가. 폐문시간을 12시로 두어 자율적 분위기 조성
 - 나. 각 동별 생활지도 교사를 두어 인원확인 및 생활규율점검
- 7. 구비서류**
 - 가. 생활관 입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나. 사진 2매(식관중, 호실명패용)
- 8. 기 타** : 신청 마감 후 신청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일 때는 개방 취소함.

금 강 생 활 관

공예작품 전시회 및 특강

본 실에서는 2001학년도 1학기에 개설 할 장기강좌(수료증·자격증 취득) 홍보전시회를 갖습니다. 전시되는 작품은 스텐실, 포크아트, 패션페인팅, 웨도우박스 네분야. 마지막날은 특강과 더불어 패션페인팅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은 관람과 참여바랍니다.

<전 시>

1. 전시기간 : 11. 27(월) 낮 12시부터 12. 1(금) 낮 1시까지
2. 전시시간 :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3. 전시장소 : 학생회관 패스트푸드점(지하F), 옥야실(3F)
4. 전시내용 : 공예작품들(스텐실, 포크아트, 패션페인팅, 웨도우박스)

<특 강>

1. 일 시 : 12. 1(금) 오전 11시~오후 1시
2. 장 소 : 학생회관 3층 옥야실
3. 내 용 : 패션페인팅에 관하여... (순수 창작 못! 패션패인팅 작품 연출법, 침바지, 면티셔츠 등을 가지고 오셔서 특강일날 배워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세요.
4. 준비물 : 연출하고 싶은 옷이 있으면 가져 오셔도 좋습니다.(무료)

경주캠 여학생실

학생식당 · 복지매장 돌아보기

“비영리 독립법인을 꿈꾸며”

과도기 돌입 ... 신뢰 바탕으로 해결 모색 해야

1997년에 임의단체로 창립된 본교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생활 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한 독립법인으로 조직전환을 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생활 법인화의 논의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의 대부분은 생활을 단지 학교 식당이나 매점 등을 운영하는 영리조직으로 잘못 인식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의 역사와 정신을 되돌아보고, 본교 생활의 설립 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884년에 영국의 공업도시 로치데일의 직물공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28명의 노동자들이 1년에 1파운드씩의 출자금을 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공동구입하기 위해 로치데일 공적개혁자조합을 만들어 운영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자본이 노동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까지도 종속시키는 것에 대한 본능적 대응이었다. 이후 세계 각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출자와 운영과 이용을 공동으로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1938년 국제협동조합 연맹(ICA)총회에서 ①가입·탈퇴의 자유 원칙, ②인위적 이익의 원칙, ③이차배당 제한의 원칙, ④잉여금 환원의 원칙, ⑤교육 촉진의 원칙, ⑥조합간 협동의 원칙 등 6대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본교에서 생활이 만들어지게 된 최초의 계기는 1984년 학생회의 자판기 커피 가격인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120원이던 커피값을 100원으로 인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임대업자가 거부하자, 학생회가 자판기 3대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일주일만에 임대업자가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들 계기로 학생회 산하에 학생복지위원회가 만들어져 자판기와 복사기를 직영하고, 임대업자가 위탁관리하

던 식당과 매점 등 학내 복지시설의 가격, 품질, 위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는 복지시설 관리를 책임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후생복지과를 신설해서 학복위가 직영하던 사업을 인수, 직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학원자주화투쟁의 주요 이슈로서 열악한 복지시설 운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학복위가 다시 자판기와 다량관 학생식당을 직영하고, 학교는 동국관식당을 직영하면서 교직원식당과 일부 매점은 임대위탁을 하는 기형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도적인 상황은 9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부당국이 학생운동의 자금원으로서 학생직영매장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임대업소의 영리추구라는 한계와 학교의 무책임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학생운동 정국간에 발생한 학복위사업 논쟁이 가열되면서 학내복지시설에 대해 책임있는 일원화된 직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는 학교당국과 교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논의로 발전하여 1993년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공관위는 학내복지시설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들에 모든 학내복지시설의 직영과 임대관리를 일원화하였다.

공관위는 95년에 학교와 생활 설립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하였으며 96년에 생활설립발기인회를 구성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하였고,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7년 현재의 생활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본교 생활은 1998년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독립법인으로 서 거듭나기 위한 과도적인 질적 변화의 단계에 와 있다.

본교 생활의 건설과정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갈등과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부딪힐 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의 길임을 보여준다.

김 윤 길 생활이사 본교대학원 교학부 과장

상록원 · 동국관 식당

본교홈페이지 불만 넘쳐

음식 질 · 서비스 개선으로 복지수준 향상해야

현대의 식생활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닌 생활에 대한 만족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본교 식당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최근 홈페이지에 학생 식당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이 날마다 한 두건씩 올라오고 있다. 상록원 식당의 경우 △위생 상태 △음식의 질 △직원들의 불친절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식당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위생 상태인데, 이전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상록원 식당을 매일 이용한다는 윤희철(체교2)군은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판과 지

저분한 탁자를 보면 도저히 식사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음식의 질이 낮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김세진(통계3) 양은 “반찬의 양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다”며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리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비판 의견도 번번이 제기됐다. 한 예로 배식대에 김치가 떨어져 더 달라는 학생의 요구에 한 조리사가 “김치가 없으면 단무지를 먹으면 되질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동국관 식당 역시 식기 도구가 지저분하다는 위생 문제부터 비롯해 퇴식구가



본사/사진자료

높아 식판을 떨어뜨리기 쉽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생활협동조합의 권혁선 사업과장은 “위생문제의 경우 지금까지 세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불만의 원인이 됐다”며 “세정 공간을 넓혀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이전보다 고가의 재료로 식단을 구성해 음식의 질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학생 식당은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았던 본교의 식당이 양질의 음식과 향상된 서비스로 학내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다량관 복지매장

소비자 권익 보호 부족

임대매장 교환·환불 과정 임의 처리

지난 6일 본교 홈페이지의 소비자 상담실 토론방에 다량관 잡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교환과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게시되었다.

박연미(북한3) 양은 지난 3일 생활 임대매장인 다량관 1층 잡화점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품질에 불만을 느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잡화점의 운영자는 “제품이 이상이 없다”며 “전자제품 특성상 이미 사용한 제품은 하자가 없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 사건은 잡화점이 그 제품을 타학생에게 재판매하고 대금을 박연미 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은 생활과 임대매장인 잡화점 사이에 맺은 계약 조건에 교환과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2일 체결된 후생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서에는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교환과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물품의 하자에 대한 기준이나 교환과 환불 가능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임대매장은 교환과 환불에 관한 문제를 운영자가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 박연미 양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환과 환불에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김준미 기자

이에 비해 다량관에서 생활이 직접 운영하는 서점은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가 파본일 경우와 전공도서를 잘못 구입한 경우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깨끗하고 편리하다”, “휴식 공간이 생겨서 좋다” 등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량관 복지시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품의 구입 후 교환과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활과 그 조합원인 학생들의 마찰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임대매장이 교환과 환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조합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문화관 그릴

그릴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질 · 위생에 불만 높아 ...재평가 필요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그릴 식당에 대해 △가격 △친절도 △음식의 질 △위생 상태 등 네 개 항목에 대해 스타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

의 질에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스가 굳어진 스테이크’, ‘노란 고무줄만큼 탄력있는 면발’, ‘끈적끈적한 식판’ 등이 문화관 지하 2층에 위치한 그릴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불만이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 현승훈(영화학 석사과정) 사무국장은 지난 7일 그릴 민영화 지배인을 만나 김치 자율 배식대 설치, 위생 청결, 식단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릴 식당 측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김치 자율 배식대를 설치하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교체해 음식의 질을 개선하도록 했으나 식단메뉴와 위생에 대해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릴 측에 따르면 위생 관리는 1년에 4차례 실시하며, 지난 13일 하반기 자체 점검에서는 500점 만점에 466점을 받는 등 위생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식단메뉴는 그릴의 본사인 LG가 지정하고 있어 그릴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는 개선된 사안을 지켜본 후 재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운지(영어영문학 석사과정) 생활 대학원 대표 이사는 “위생상태와 식단메뉴 등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제시하면 LG 본사에 그릴식당개선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2000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3 Fax. 2268-7851



불교가사 원전연구

임기중 저 / 1155쪽 / 60,000원 불교가사 원전에 현대문 해설과 주석을 붙인 불교가사의 완성판



실낙원 · 장사삼손

이창배 저 / 590쪽 / 17,000원 60년대 초에 나왔던 밀본의 대표작 실낙원을 다시 번역한 책. 여기에 장사 삼손을 덧붙여 한 책으로 묶었다



숨어있는 황금의 꽃

고재석 저 / 356쪽 / 11,000원 불교문학은 불교와 문학이 성과 속이라는 이율배반적 관계 속에 성립하는 역설적 문학이라는 점을 강조



RNA효소의 촉매작용

박인국 저 / 287쪽 / 9,000원 분자 유전학, 생명공학, 항암치료 및 유전자치료 관련 연구자들의 지침서



에이즈에서 히니까지

이창배 저 / 485쪽 / 15,000원 에이즈에서 히니에 이르기까지 영미 거장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하고 해설한 영미시



불교학 개론 (한글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 284쪽 / 8,000원 기존의 불교학개론을 우리말로 모두 고치고 새롭게 편집한 불교학 개설의 대표적 저술



한방은 배설의학이다

최달영외 역 / 구보 마치노리외 저 / 255쪽 / 9,000원 한의학의 고전인 상한론과 금궤요락을 바탕으로 한의학 이론을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재조명



중보한국 연극사

장한기 저 / 421쪽 / 12,000원 장한기 교수의 『한국연극사』중보판. 한국연극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



불교와 도가사상

김항배 저 / 388쪽 / 12,000원 불교와 도가사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사유경향·인식방법·참자아의 증득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

일본 근대문학사 上中下

고재석·김항기 공역 / 니키무라 미쓰오, 우스이 요시미, 히라노 겐 저 / 예정가 12,000~15,000원(근간) 방대한 일본근대문학사를 소설처럼 기술. 명치시대편(상)·대정시대편(중)·쇼와시대편(하) 3부로 구성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한용환·강덕화 공역 / S·채트먼 저 / 근간 / 예정가 11,000원(근간) 서사학자 S·채트먼의 작품. 영화를 서사적 분석의 중요 대상으로 삼음, 서사의 유연성을 유감없이 발휘함

연행록

임기중 편 / 전50권 / 예정가 2,000,000원(근간) 고려말부터 조선말 중국을 다녀 온 외교사절들의 기행문. 한국의 역사·철학·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

한국불교의 현대적 모색

목정배 저 / 500쪽 / 예정가 18,000원(근간) 한국의 불교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 화엄·선·천태·밀교 등 불교사상 전반을 다룸

생협 운영구조 점검

조합원 '주인' 되는 열린구조로 변해라!

생협 기본원칙 준하는 운영 필요 ... 이익잉여금 문제 같이 풀어야

"생협의 1년 매출이 70억이고 이익이 5억이나 된다고 한다. 생협은 우리를 위한 조직인데 이익을 남기다니..."

"차라리 남는 돈으로 상복원 식사가격을 낮춰라"
본교 홈페이지에 익명의 필자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문건들이다. 실제로 지난 해 생협은 98년도에 비해 10억 가까이 늘어난 7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인건비 등 지출항목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남겼으며 누적 총이익잉여금은 3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4억원 가까이 되는 잉여금에 대해 비영리 기구인 생협이 너무 많은 잉여금을 남기며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협 학교관계 운영위원인 황영수 사무처장은 "생협은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최소의 잉여금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적립금 이외에 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잉여금은 장학기금에 사용되는 것보다 학내 매장의 물품가격을 낮추고 음식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며 "4억원의 잉여금으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소의 잉여금 남겨야

이점에 대해 생협의 한 이사는 "이 잉여금으로 복지관 건립기금과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자하고 있다"며 "잉여금의 용도

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세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잉여금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생협 잉여금 중 복지관 건립기금이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관 건립기금이란 오는 2006년 본교 1백주년을 기념하여 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조성됐으나 복지관 건립이 불투명해지면서 건립기금의 용도가 현재는 미정으로 바뀐 상태이다.

복지관 건립기금 임의처리 의혹

생협 학생이사 유명곤(산공4) 학생복지위원장은 "수영장 매입 등 사용용도가 구체적 인 기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확실한 목적이 없는 기금이기에 때문에 추정예산처럼 임의로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생협 사무국 이재욱 팀장은 "복지관 건립기금은 다른 용도로 지출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복지관 건립기금은 현재 97년도 1억원, 98년도 3억원 등 총 4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이익잉여금 논란 문제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줄지,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가격정책을 결정할지, 계속적으로 적립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생협 직원 채용과 처우문제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식직원이 70명으로 학교 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대부분 학생회 출신 졸업생으로 연봉이 3천내지 4천

이라는 소문이다.

확인결과 생협 직원은 총 160명이나 이중 △정직원=57명 △임시직=27명 △아르바이트=76명으로 상복원 식당 종사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식직원 연봉과 관련하여 생협 관계자는 뜬소문이라며 "연봉 3천만원 이상은 1명뿐"이라고 밝혔으나 생협측에서 관련자료 협조요청을 보류해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익잉여금 등 생협 운영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논란이 된 것은 생협운영이 이사회에서만 결정되는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다수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은 물론 생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작 학내에서는 여론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생협 잉여금의 용도를 처음 알았다는 김동은(전기전자2) 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협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생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직원 채용과정 불투명 논란

서점에 근무하는 이상근 계장은 "생협 운영은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조합원은 오히려 뒷전"이라며 "생협의 기본 정신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원이 생협에 유일하게 참여하

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정도이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사회는 생협이 조합원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민원처리 구조 개선

지난 8월 연세대에서는 학생복지위원회가 생협 잉여금 처분명목에 대해 잉여금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생협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또한 10월 생협설명회를 개최 학생들의 생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상근 계장은 "생협이 이사회 동의없이 처리한 추경예산안 문제나 상반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생협이 임의적 집행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세미나, 공청회 등 생협 운영에 대해 양방향 의사소통의 통로를 다양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가입이 의무적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바뀌는 독립법인화가 되면 학내 구성원의 생협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의견과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운영구조와 조합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내 구성원들이 생협 운영에 대해 주제적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생협의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중 기자
dizy20@dongguk.edu

의 회의를 학교측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사안이 논란이 된 것이다.

정용길 기획인사 처장 등 학교 관계 추진 위원들은 생협의 적자운영을 대비해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측에 2명의 인사 추천권한을 줄 것을 제안했다. 즉 11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현 정관에 2명의 학교 추천인사를 추가해 총 1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 대표 이사들은 학교측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지난 달 23일 열린 8차회의에서는 학생대표가 학교에서 추천한 2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는 것을 인준함에 따라 임정의 차이가 좁혀지는 듯했으나, 단 '독립법인 후 최초의 이사회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학교와 대립을 보였다. 황영수 사무처장은 "건물 임대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제조건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 7차회의부터는 교수회 대표가 생협직원 이사의 이사회 참여에 대해 반대해 왔다. 교수회 대표인 홍성조(산림공학) 추진위원은 "조합이 고용하는 피고용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생협독립법인 문제가 올해 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생협은 체납해온 막대한 세금을 징수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벌어왔던 사업들이 모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위원들은 교수회, 학교, 직원노조, 학생회 등 각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한계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사회는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자리이다. 생협독립법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생협독립법인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생협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정립한 후 책임감을 가진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획부
imperial@dongguk.edu

투명한 경영관행 확립해야

필자는 교수회의 대표자적으로 지난 5월경 생활협동조합(생협) 1999회계연도 업무감사를 한 바 있다. 이 업무감사에는 직원 대표, 대학원생 대표, 학부학생 대표가 각 1인씩 참가하였고 필자가 총괄직임을 맡았다.

필자는 생협이 독립법인화를 할 경우 몇몇 다른 학교에서 생협의 법인등록이 완료되었거나 심사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협의 독립법인화는 대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생협이 독립법인화 이후에 건전하게 생존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실체가 되기 위하여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눈에 띄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 생활협동조합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익을 극대화할 이유는 물론 없다. 그러나 매년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이를 축적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학생들의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물

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협 본연의 설립취지에 충실하면서 일정수준의 균형(중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이익확보가 필요하며, 차체에 적정 수준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여러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경영관행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복원 학생식당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식탁과 식판크기의 차이이다. 특히 생협법인화 추진 과정에 교수회가 소외되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생협이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생협법인의 출범단계에서 이러한 생협의 주인인식을 가지고 운영되었다면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

- 1999년도 6기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한정의견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본 감사인은 1999년 12월 31일 현재 장부에 336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내서점 재고자산과 매출대장으로 회수한 상품권에 대하여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양 계정의 혼돈된 회계기록의 특성 때문에 기타의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동 재고자산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서점의 입출고를 기록하는 전산시스템의 하자가 누적인 결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협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기 전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 생협이 법인화할 경우 생협의 복지담당 역할과 학교의 시설투자 책임, 시설이용료, 관할책임 등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생협은 복지관건립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대한 금액을 위탁하여 관리(3억 정도)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 건립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 많은 금액을 적립하면서 학교측과 상세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직영매장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적어도 1년에 한번 실시하고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요망된다. 또한 임대매장 영업실태를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인 평가자

료를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임대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여 재계약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임대 또는 직영의 의사결정이 보다 정확하고 자료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게끔 경제적인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한다.

- 요즘은 생협의 독립법인화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내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등이 빛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생협법인화 추진 과정에 교수회가 소외되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생협이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생협법인의 출범단계에서 이러한 생협의 주인인식을 가지고 운영되었다면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몇몇 대주주와 경영자들의 독단적인 경영에 의해 주주들의 이해가 희생되는 현상이 생협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진선
경영대 회계학과 교수

이사회구성문제로 독립법인 난항

구성원간 입장대변 급급 ... 책임감 있는 이사회 필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이사회 구성을 놓고 각 구성원들이 입장차이를 보여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독립법인이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학교법인 산하의 임의단체에서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협이 독립법인이 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납세 의무를 바탕으로 법적 인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타대학 생협과 연계해 부수적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합원 가입이 의무가입 방식에서 자율가입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학내구성원의 조합원 가입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대학 중 최초로 생협법에 의해

독립법인을 창립한 숭실대의 경우 창립당시 조합원 수가 450여명에 불과했다.

본교도 각 대학들의 독립법인 추세에 따라 지난 5월 31일 22차 이사회에서 생협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협이 사장, 학교관계자, 학생측대표, 교직원대표 등 13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해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독립법인화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사업대의 경우 기존에 참여하지 않던 학교당국이 새로운 참여주체로 떠오르면서 구성원들과의 마찰이 생겼는데 본교도 총 9차까지 열린 회의 가운데 5차례

낙산학사 이용 안내

동해낙산학사는 낙산해수욕장의 수려한 송림사이에 위치한 교직원과 학생의 심신수련 및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대상**
 - 학생실 : 동국대학교 재학 학부 및 대학원생 단, 15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 이용가능
 - 교직원실 : 동국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 이용기간** : 1회사용기간은 3박4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료**

	학 생 실	교 직 원 실
평상시	1인1박 1,500원 동계 난방비 1실 1박 3,000원	1인1박 15,000원 (1실 5인기준) 동계 난방비 1실 1박 3,000원
여름 개장	1인1박 1,500원 사용신청서 접수시 예약금 납부 (1실 10,000원)	1인/7박4일 45,000원 (접수시 시설관리비에 완납)

- 객실수**
 - 학 생 실 : 기본10실 강당 1실 / 동계 5실 운영 (1실 20명기준)
 - 교직원실 : 13실/ 동계 7실 (1실 5인기준)
- 이용신청**

	학 생 실	교 직 원 실
평상시	선착순 접수(월~금) 시설관리팀(2260-3083)	수시접수(월~금)
여름 개장	선착순 접수, 학생복지실 접수 접수기간: 5월중 학교신문에 공고	

- 교통편**
 - 고속버스이용
 - 속초행 버스 → 양양 하차 → 택시, 시외버스이용 낙산해수욕장 C지구
 - 기차이용
 - 청량리출발 → 강릉역 하차 → 시외버스 및 택시이용 낙산해수욕장 C지구
 - 시외버스이용
 - 동부터미널(구의역) → 양양 하차 → 택시, 시외버스이용 낙산해수욕장 C지구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신리 433-6호 낙산 해수욕장 C지구
연 락 처 : 구내) 국번없이 607번, 외부) 033-671-2181

동국대학교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직종	근무지 및 인원	응시자격
행정직 I (일반행정)	서울 0명 경주 0명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학과 제한 없음 대학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인 자(백분율 환산점수) 1971.1.1.이후 출생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행정직 II (재무회계)	서울 0명 경주 0명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회계, 재무관리학과 출신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는 학과 제한 없음) 세무,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세무사, 공인회계사자격 소지자 특별우대) 대학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인 자(백분율 환산점수) 1971.1.1.이후 출생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영어, 논술), 1차 면접(필기시험 종료 후 실시)
 - * 보훈 대상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가산점 부여
 - * 최종면접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제출서류

- * 지원서(소정 양식, 반명함판 컬러 사진 부착) 1부
- * 본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dongguk.edu)
-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각 1부
- * 자격증 사본(해당자 또는 소지자) 1부
- * 경력, 보훈증명서(해당자) 1부
- * 불교도신명록(소정 양식) 1부(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0. 11.28.(화) - 11.29.(수) 17:00 한, 서울·경주 캠퍼스 총무팀

- * 서류미비 또는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1차 시험일시 및 장소 : 2000. 12.3(일) 10:00, 본교 서울캠퍼스 고사장

- * 경주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시험을 실시함.

문의처 : 서울캠퍼스 총무팀 ☎2260-3854/59)
경주캠퍼스 총무팀 ☎054-770-2062/63)
http://www.dongguk.edu (지원서, 신청증 등을 Down 받을 수 있음)

2001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시행

1. 일반 휴학

- 가. 접수일자 : 12. 11(월)~13(수), 2001. 3. 2(금)~6(화)
- 나. 휴학 대상자 : 가점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인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1부),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상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제적됨

2. 복학

- 가. 접수일자 : 12. 4(월)~5(화), 2001. 2. 26(월)~28(수)
-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1.3월말 이전 전역예정자.(3월이후 전역예정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각 전공(학과)별 신청기준에 적합한 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복학시 전공결정신청원을 함께 제출 바람.)
- 라. 구비서류 : 1) 일반복학자: 복학원서 1부
2) 군복학자: 전전역자-복학원서 1부(소정양식),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자-복학원서 1부,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제대 후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3. 재입학

- 가. 접수일자 : 12. 4(월)~8(금), 2001. 2. 26(월)~28(수)
-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3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1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2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 다.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1부

교 무 처

소나기

누구를 위한 기념관인가?



△박정희를 위한 기념관이다. 몰랐나? △우리두 America처럼 대통령 기념관을 다 짓는거야. 글구 그 사람들이 해놓은 정책들을 다 공개하구 그림 좋는데... 안될까? △그들만의 기념관...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절대 우익 보수 기독교 층이줘~ △무슨 기념관인지 알아야 쓸 거야나? △어쨌든 박정희는 독재자였다. △박정희? 후후 싫어!! △기념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주는지는 않는다.

△기념관 신드롬? 기념관을 세우지 않아도 위인은 위인이다. △나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어주세요!!! △진정 이 땅에 기념할 인물이 있던 말인가. △이 땅위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세우시다. △소박하지만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기념관을 만듭시다.

△전직 대통령의 악행 기념관을 만들자. 안 되겠다 너무 많아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자. 그래야 이런 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후세에 알리지... △제2의 IMF라 돈도 없는데 얼어죽을 기념관이냐?

△바로 기념관을 만들자. 바보=김영삼. △민중화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듭시다. △기념관이 꼭 인물을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박정희는 폭군이자 지금 내가 밥을 먹는데 큰 도움이 된 사람이다.

△구미에 짓는 것은 허용해 주자. △박정희, 세 글자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역시 장군급이었군! △기념관 만든다고 하고선 귀(貴)념관 만들지 마라.

△저 기념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가면 기념관이 있디구요? 기념관은 누구거예요? △기념관은 민족과 국민의 연결체이다. 이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기념관은 언제 문 열어요(?) 항상 닫혀 있어서... 국민에 대한 그들의 모습이. △있을때 잘하지. 지금 지어서 빛보는 사람은 누구지? △기 : 녀관인 녀 : 원하던대로 안돼 죄송합니다. 관 : 심 부탁드립니다.

오수길 최한규 (인문대 서양화3) 현곡면 일대 버스정류장 안 벽화 무로봉사 활동 사람들 정을 느끼게 해준 값진 경험 "자연의 체취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라며 속스러운 듯 웃음을 지어 보이는 최한규(경주캠 서양화3)군. 그는 지난 여름 뜨거운 7월의 햇살을 등진 채 현곡면 일대의 조그마한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며 버스정류장의 벽화를 그리며 당시를 회상하는 듯 그의 표정에는 아련함이 묻어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더운 날씨에 수고한다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동네 어른들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꼬마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7월의 햇살만큼 따사로운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힘들었던 때를 기억할 때는 최한규 감독이 새로운 듯, "그림을 그리는 도중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해 받고부터 었어요"라며 벽화를 그리게 된 사연을 말하는 최한규에게서 교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었다. 벽화를 통해 마을 마을마다 얽힌 전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전리안 : dgupress

보도블록 공사 시급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 확인하곤 한다. 만약 그 날 정각엔 수업이 있다면 나는 항상 운동복 차림으로 학교에 간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막상 옷고만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학교 학생 복지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비오는 날, 정각엔 가는 길의 학생들 모습은 무척 다양하다. 바지를 가능한 위로 올린 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면만 두 마구 뛰어가는 학생도 있다. 심지어 자가용을 가진 친구에게 부탁해 단체로 이동하는 무리도 있다.

학교는 최근 분관 건립을 위해 파 두었던 부지를 원상 복구하고 소운동장을 야구 경기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정각원으로 향할 때마다 곤혹스러워 하는 학생들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달 후엔 입학할 신입생들의 학교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보도 블록이라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는 학교측의 용단이 필요한 때다.

장경국 (법정대1)

다양한 도서 보유 시급

대학공부는 누구의 간섭과 지도 없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안내해 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책이다. 책은 우리에게 끝없는 지식을 알려주고 앞으로 나아가 할 길을 바로 잡아주는 안내자다.

하지만 우리학교 도서관을 보면 이용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자료실에 배치되어 있는 책들도 모자란다. 최근 새로 들어온 책들은 대부분이 소설이나 유행하는 판타지소설이 고 전공관련서적은 한 두 권씩 북북처럼 있을 뿐이다. 이런 책도 필요하고 저런 책도 필요하지만 정작 지성을 키워주는 책, 학습에 필요한 책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학교의 불교서적 보유율이 가장 높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었다. 불교서적보유율은 자료실 한쪽에 상역처럼 자리잡고 있는 불교학 자료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어요" 라는 말속에서 작품에 대한 최한규군의 열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고향인 경주의 소중함을 알기에 대한민국 최고 이점에 경주최고의 미술인이 되고 싶다는 최한규 군. 그가 얻은 지난 여름의 귀중한 경험과 추억이 한 사람의 미술가로 성장하는 길에 보탬이 되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란다.

(인)

minoch@mail.dongguk.ac.kr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독자의 이해 돕는 기사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코걸이나 허걸이 등 괴어심을 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일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주목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괴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지난 1308호의 '괴어심·타투...'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괴어심이나 타투가 만들어진 유래와 변천 과정을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괴어심과 타투에 대해서 개성과 자아 표현의 한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사회적이고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여 독자의 균형적인 이해를 돕고 있는 기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임병후 (사과대2)



(제1309호 11월 20일자)

대학 기자의 시각 제시

요즘은 안티조선일보에 대한 글이나 말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평소 내가 아무생각 없이 봤던 신문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맹목적인 인티는 삼가고 모든 언론이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호 사회면에 나온 안티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진중권씨의 강화내용을 그대로 열거해놓은 것 같았다. 이는 다른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는 기사들과 별 차이가 없어 식상함을 가져다 주었다. 오히려 대학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선일보가 참신한 매력을 주지 않을까?

안현정 (인문과학대1)



동악광장

목격담

축하합니다

△금혈언니, 문영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동다가 △김상호 알티 합쳐 축하해, 나중에 꼭 대통령 될거다. 카하~ 나 꼭 알티 쉐리닝 하나 얻어야 줘야해~ -독문과 Hide △한승완군과 김수정양의 200일 늦게나마 축하축하~ -찬 △기훈오빠! 생일이 지났지만요. 진짜 진짜 축하해요. -B.S.D △성유익형, 정이누나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려요. △지혜야! 핸드폰 산거 축하해. 이제 그만 좀 때려!! TT -머슴 △진기 95 김도현 생일 축하합니다. △헤린언니 22일 생일 축하해~ △총학생회 편집장 되신거 축하드려요. -POST 가족 일동 △남길야 여자친구랑 천일 축하해!!! 평생 같이 하기로... △용준선배, 재학선배, 진희선배 그리고 영선배 축하드려요. -K2, J1 △헤린언니 22일 생일 축하해~ △청규야 축하해!! -회계학과 일동 △헛! 생일축하!

수고하셨습니다

△편·경 3달동안 학교 알바 끝나다 수고했어요 △야총 선운본 진짜 수고, 경식이! 수고했다. -짹짹 △금초 양수리 채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초 화팅~ -s.o △박살모기님, 그래픽속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우 △김홍민, 김덕기 두 후보자 정말 고생하셨구요 언제나 헌신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두분 되셨음합니다. -아줌마 △33대 경영대 건설을 위한 김성호 선거 운동본부 운동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글구 선관위원장님부요... △산하 식구들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보도부 42h... 해경, 해정, 지영, 서경야... 이제 방송 한 번 남았다!! 마지막까지 열심히하고... 수고했어 -41th 정화 △소정야! 거기서 뛰하고 있냐? 빨리 와서 쇠 쳐야지. △피파리는 %(퍼센트)... 자기 목소리는 자기힘으로!! 힘을 모아 더 큰 목소리를... △학술제 준비하신 중문과 학우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42대 동국 문화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열심히합니다

△12월 2일 마약퇴치 봉사 정운, 현욱, 주호, 대현, 주현, 참사람 봉사단 파이팅! 3시에 중강당 보러오세요! 짹 있어요! △아리랑 사람들 모두 공연준비 열심히 해여. △The Dongguk Post 마지막 종강호 힘냅시다. Fighting! △재동대 성동동문회 여러분 출지만, 섬공부 열심히 하세요. △소정야, 꼭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나. 마당인 여러분! 소정이가 웃으며 문방을 들어서서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됩시다. 그리고... △21일 동, 경, 전 끝까지 견디자. △소정야! 얼른 패우해서 얼굴 보자. 첫눈이 내리기 전까지 꼭 낚기다! -우주인 △내사랑야 2000년두 얼마 안남았어요 마무리 잘하구 곧 우리의 1600일이 다가오는 2001년에도 우리 둘이 사랑해요. -Yours △탈, 람, 민사 여러분 언제나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게? 크크 △사회과학부 징검다리 기행졸 가자 -Na △병훈야 기말엔 완벽한 노트 부탁해~ -물가 △그린파파야의 향기야 요즘 뜬한데. 잘 살아라! -KAIOS

온방길

축하합니다

△대우야 생일 축하해(11.28)~ -선영 △11월 25일은 광연이와의 1111일 되는 날!! 축하! 축하! 축하! ♥해. -YIKIYO1 △킴정 하리훈 사람이 되어 돌아와라. 축군인!! △영문과 3학년 박연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연희생일 2000. 11. 26 -내가 △중수야! 2학년 1학기 과제 된 거 축하한다. △지현야~ 너의 2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헛!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수고가 많군! -감 △졸업생생송회 준비하느라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RCY) -16기 일동 △1년동안 수고하신 불교문화대 의장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총대축의 이쁜이! △명예위원장 1년간 수고 엄청나게 했다. 39기 동기들이 마지막 정리 잘하고... 39 -522 △Newsweek 고별 발표회와 졸업생 환송회! 모두 모여서 하나되는 시간을 가지시다! 임원진 여러분들 수고 많았구요. 특히 회

장님 謝謝! 졸업생 파이팅! -울리엄 윌슨 △아름피름 연구회 '붓·아'가죽들. 첫 전시회 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수경 교수님, 은화언니 정말 감사 드려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어서 너무 기쁘네요! -기 경나, 혜현 △조소과 여러분!! 전시회 준비로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요. -뽕 △헤원아! 니 그림 전시 해 놓은 거 보러 조만간 찾아가마. -기사 △헤원야~ 너희 공연 멋있었다던데... 이번에도 못봤네... 내년엔 너의 멋진 모습 꼭 보러 갈게. -연니아가 △별써 기말고사로 바쁜 속이 A+ 못 넘으면 알지? -농뎡이 △연하~ 니 덕분에 내가... 고맙구 곧 풍고불이 떨어질거야 -011 △지난 한학기 사회복지 학우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합니다

△21기들 다인의 밤 치루느라 수고했다. 3학년이 되어서도 다들 열심히 생활하길... -18기 평 △풍곡대 중앙풍물체 '불췌' 파이팅. 21기 너의 후배들이 열.씨.미. 사랑한다. -20기 △근혜야~ 니 일생의 대단한 일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선거일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힘내렴. 니 옆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구... 화이팅!!!

△언제나 착실한 DUTC. 화이팅!! △몇달 후면 신입생이 입학하겠지... 모든 00학년 화이팅!!

그리고...

△가고교 Seven-Line(무순, 미진, 정숙) 영원한 사랑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T.G △은희@강해 그들의 영원한 사랑... -건 △마지막 신문일 것 같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떠난다.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준 철학괴여!! 영원하리라!! -94 도현. △DKBS의 꼬맹이들이! Audition 잘 받기를... -Semiangel & 강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일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 다음 주면 조금이나마 짐이 줄어들 것이지? △내 친구 정희야~ 밥 안 먹었다고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단다. 앞으로 우리 우정 잘 쌓아 나가자구나. 글구... 전화 좀 해라. 놀자~ △별써 한학기가 지났구나. 입학한지 2년이 됐다는게 안 믿킨다. 내년에도 대학생 활 잘하자. △우리 5명 내년에도 변함없음을 좋겠구,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 주는 친구로 남자. △친구야~ 생활이 힘들어도 이겨내자!

강욱경 (북한3)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학생증 인증 시스템’ 도입

찬성

반대

효율적 컴퓨터 사용과 올바른 사이버 문화 확립을 위해 이 제도는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 내 공용컴퓨터를 사용할 때 학생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연결되어 부착된 인식기에 학생증을 꽂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외부인들의 학교 컴퓨터 사용을 막아서 본교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정보관리실에서 컴퓨터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급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고장난 컴퓨터가 너무 많아 허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이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타인비방, 해킹, 명예훼손, 통신 사기 등의 일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생증 인증 시스템’

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 예전에는 학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발되면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야 했다. 하지만 ‘학생증 인증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면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얼마 후면 우리 학교 내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다.

무슨일이든 시작단계에서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편히 컴퓨터를 쓸 수 있으며 마음 놓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 제도는 더욱 효율적인 컴퓨터 이용과 사이버 범죄의 차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유용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선미 (자연과학부 2)

공용 컴퓨터실에 붙여진 학생증 인증 시스템 도입이라는 안내문을 읽었다.

외부인의 컴퓨터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컴퓨터 관리와 언어 폭력, 해킹,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른 처사일까?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정보화 사회’라는 말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기정사실이다. 그만큼, 현대는 정보가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보 하나가 자본이며, 곧 이윤 창출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또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

만약, 지금 계획처럼 학생증 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의 유용한 콘텐츠를 잃게 되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정보화 시대’ 중요 콘텐츠인 정보획득 제한은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이다.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이를 조항은 국민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의 학생증 인증시스템과 관련된 이러한 처사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금지, 범죄예방 등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기본권을 침해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생증 인증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몇 가지의 문제점때문에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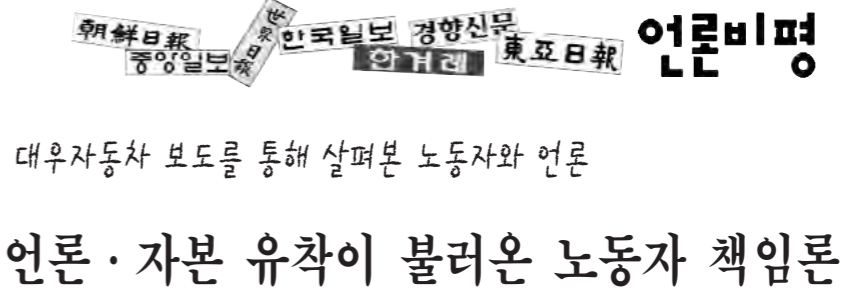
박춘신 (사회과학대1)

열린글터

생활세계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모든 동양인들은 대학의 서열화작업에 대해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언론에서 동약을 중위권으로 보도하면 학생들은 총화 생활을 통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당국은 대학을 대표하여 사과와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술자리에서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도 서열화작업이 등장하면 바로 그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전락상의 문제로서 다른 식민 상태에 있는 대학들과 연대하여 저항적 동맹관계를 맺어 투쟁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하고 역량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의 한층된 조직을 잘 활용하여 체재계편하고 주력사업으로 한국대학의 식민 상태 적결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한층된 현실을 제고하는 데에도 학생들을 응징하는 데에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적, 즉 은연중에 자라잡은 콤플렉스를 복식시키고 각자의 지적능력을 성숙시키는 한편 인성을 함양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5월 혁명을 통해 파리에서는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파리 1대학에서 파리 10대학으로 대학체제를 평등하게 재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태량 (정치외교3)



언론·자본 유착이 불러온 노동자 책임론

IMF 이후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던 ‘경제’가 또 다시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위기대처능력 부재와 공적 자금을 대한 소홀한 관리가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언론이 ‘노동자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우자동차가 최종부도 처리된 지난 11월 8일 전후 몇몇 메이저신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11월 7일 이미 ‘지원없으면 오늘 최종부도’라는 기사를 통해 ‘생산성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조를 길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관단의 생각’이라며 ‘노조길들이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전했던 조선일보’는 대우차가 최종부도 처리된 지난 11월8일 1면 ‘대우차 최종부도’- ‘노조구조조정 거부... 법정관리 예상’과 사설 ‘대우차, 최종부도 처리 그후’를 통해 노동자를 겨냥한듯한 논조를 펴보이고 있다. ‘회사의 운명이 흥전등화 같았지만 그것은 바람골 위기 속에서도 노사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생의 노력보다 공멸도 불사한다는 피자의 강공책이 맞선 결과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11월9일자 동아일보 사설 ‘대우차의 어리석은 선택’은 “뉴욕타임즈가 7일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GM이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던 보도한 것은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기업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침몰위기에 있는 회사를 일단 구해놓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느낌이다”라며 외신까지 인용해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11월8일 “우리는 이런 식의 물아치기식 이벤트성 퇴출행사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기업폐쇄 발표를 공격했던 중앙일보는 11월 8일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한 동서서 제철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우자동차가 최종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노조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부도가 결정되고 난 다음날인 11월 9일 ‘대우자동차가 남긴 최악의 선례’라는 사설을 통해서 “... 그러나 이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끝까지 구조조정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회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최종책임은 노조측에 있다...”며 강도높게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11월 11일 민주노총의 항의에 대해 반론문을 준다는 차원에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의 ‘노동자만 더 희생되라고’를 실었지만 조선일보전체 논조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왜 메이저언론, 다시 말해 ‘힘있는’ 언론들은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권언 유착보다 더 본질적인 자본 언론 유착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 언론이 ‘자본화’하거나 혹은 자본에 ‘밀착’, ‘사익’ 행거기에 열중하다보니 ‘자본’ 보다는 ‘임노동’ 쪽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근본적 책임을 노동자에게서 찾는 이러한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노동자책임론에 대해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추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소리가 높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총장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 특별기고-대학서열화 조장의 병폐진단

사회 곳곳에 만연한 대학간 서열화 현상

지적 능력 향상으로 지배학벌 문제점 타파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대입시험과 동시에 주위는 우리를 감습하려는 모양이다. 시험철만 되면 지배학벌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각 언론사는 서로 경쟁하듯이 상위권대학의 커트라인을 떠들어대며 대학을 서열화시켜 학벌의 식민지상태를 공고화하려 든다. 언론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는 반복되어 지배학벌의 이데올로기 조장과 패권유지에 적잖은 공헌을 한다. 공적·사적영역의 협공으로 피지배 학벌은 이를 문제삼기보다는 소시민적 수용으로 일관하거나, 푸념으로 끝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문제제기할 생각마저도 거세 당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학벌의 지배와 피지배 양상을 문제삼고 타파하려는 생각은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분명 아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지배와 종속으로, 참여와 배제로 구결되는 정치판에서의 지역주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며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대학의 서열화 현상은 뚜렷한 근거도 없다. 시실면

서나 학생, 교수들의 능력과 연구실적에 있어서 각 대학들은 너무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내에서는 그나마 청년의 순박한 양심과 지성인임에 대한 인식으로 서열이 느슨해지던 사회로 나오면 자신들의 연줄을 찾아 성벽을 쌓고 만다. 이렇듯 대학서열화는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구조적으로 피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피지배 대학출신들을 자포자기적 인성으로 내어치게 만든다.

하지만 정작 피지배 대학의 학생과 관계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피상적 울분만을 터트리며 냉소로 대응했던 것이 사실이다. 총체적 논의를 거쳐 개인의 투쟁과 대항으로까지는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판치고 있는 대학서열화는 더 이상 좌시할 수도 없고 좌시해서도 안 된다. 그 연유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피지배 대학의 학생들을 주체로 하여 냉철한 반성과 함께 치열한 투쟁이 요구된다.

1920년대 이탈리아에서 차별을 당하는

남부지역에 ‘식민지’ 개념을 적용한 안토니오 그라미의 말을 잠시 빌린다면 지금 동약은 식민지나 다름없다. 즉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에서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콤플렉스에 빠져 있고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적 강요와 억압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분명 주목해야 할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착취당하는 식민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는 외부의 세력이나 지배세력이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식민지 내부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깨부수는 방법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알아야만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해결해 주겠는가? 이는 뒷집지고 안타까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로 대변되는 청년의 기백과 이성적인 선배교수들의 전략적 지혜, 재경과 행정을 담당하는 대학당국의 대표적 일간반영과 대외적 공표가 서로 결합하여 지배학벌에 정면 대항하여 승부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전공(복수, 연계전공) 결정 신청원 작성시 유의사항

- 1. 전공결정 - 2000학년도 대학 및 학부 모집단위 소속 1학년 재학생 또는 2001학년도 2학년 1학기 복학생 등 학부,계열 소속학생으로서 - 소정의 대학별 전공 신청요건을 충족하며 - 2학년 전공과 동시에 제1전공 결정을 희망하는 자.
- 2. 복수전공(연계전공) - 금번 전공결정 신청원을 제출하여 제1전공을 확정하지 않은 학과단위 재학생 및 전공을 확정받은 복학생으로서 - 1학년 누계 평점평균이 2.5이상인 학생이 될 수 있는2학년 전공예정자 중 - 복수전공(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

기본 원칙

- 1. 전공결정 - 전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전공 결정 대상자는 소속 모집단위(대학,학부)내의 개설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전공결정시에는 가장 희망하는 1개 전공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 전공결정 과정에서 특정전공(학과)으로 지원이 관중된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가) 전공(학과)별 배정인원 : 2000학년도 전공별 정원율 기준에 함. 단, 대학별로 1차 전공결정 배정인원은 다음 * 전공별 인원배정표 참조 나) 각 전공별로 배정가능인원 범위내에서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배정한다. 다) 신청자의 2학기 전체성적 누계 평점평균(F포함)을 비교적용한다. 라) 정원의 입학성은 전공별 배정가능인원으로 배정한다. 마) 전공신청조건 충족여부는 정규학위 및 계절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원은 제출후 2001학년도1학기에 휴학하는경우에도 제출신청원 에 의거하여 전공이 결정된다. 5) 신청자에게 해당되지 않았거나 탈락된학생 등 이번 1차에서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말에 전공을 결정한다. 6) 이번 1차 전공결정시에 전공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2학년1학기말에 시행 예정인 2차 전공결정시에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2. 복수전공(연계전공) 1) 선발인원 : 기준정원100%~200%에서 결정하며, 시실여건·교수확보 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별로 배정가능인원이 설정된다. * 2000학년도 전공별 정원율 기준이 된다.(인원배정표 참조) 2) 지원자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하는 전공은 취득 성적(F포함)누계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동점인 경우 동순위처리) 3) 최대 배정인원에는 정원의 입학성이 모두 포함된다. 4) 대상학과: 계절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단,제한사항 있음 5) 제한사항 ① 한의학과,의화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②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③ 교직원과정 이수허가자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과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불허. ④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6) 1차 전공결정시 탈락된 학생은 복수전공 이수허가가 불허된다.
- 3.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거친후본인의 적성과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지망할 제1·2·3전공을 결정한다. 4. 지원서 작성전에 학기말에 통보예정인 2학기 성적과 희망 전공의 인기도 및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5. 교무반은 신청원(OR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컴퓨터를 수정 색인원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다만 제2·3전공은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내용을기재한다. * 특히 배정인원표에서 신청 전공코드를 확인후 정확히 표기할것

- 4. 제1전공은 본인이 소속된 대학(학부)내 전공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연계전공)은 소속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5. 작성시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인여 써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6)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는 원칙상 취소 및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접수전 최종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개학기에 한하여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졸업예정학기까지 복수전공 기준학점의 1/2(36학점기준으로 18학점)이상기취후한 자만 소속대학 교학과에 졸업연기신청이 가능하다. 2.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충족하도록 하위수여는 할 수 없다. 3. 복수전공 이수중 중도포기한 경우 단일전공시전공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여 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즉 140학점 졸업학점 기준으로 전공학점이 5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학위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동일한 졸업증서 및 학위번호) 5. 복수전공의 졸업은본(졸업시험포함) 시행방법에 관한사항은 각 대학의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6. 제1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 중도포기후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시 21학점 이상 취득하였다다면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하여 인정한다.(단, 법학과 제외) 7. 복수전공 이수허가후 2학기까 이상 이수하였으나 변경(포기)을 희망할 경우 소속대학 교학과에 복수전공 포기(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잔여여에 한하여 허가한다. 8.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연계전공을이수하였어도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 8. 연계전공은 이번엔 첫시행되는것으로 2개이상의 학과또는전공이연계하는 제1전공은 전공과정으로 교과과정은 2000년 학업이수기록(530P~)에 상제하여내워이 신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결정 시기별 인원배정 유형

결정 시기	최대 배정비율			비고
	A형	B형	C형	
2학기 이수후	100%	80%	50%	
3학기 이수후	50%	70%	100%	
해당 대학	불교, 이과,사회과학, 공과, 정보산업,예술	경영, 생명자원과학	문과	

* 2학기 이수후 선발시 정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은 3학기 이수후 선발정원에 통합하여 학생을 배정함.

● 복수전공 최대배정 인원

대 학	학 과(전공)	최대배정비율
불 교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	100%
문 과	국어국문, 문예창작, 사, 철, 윤리문화, 영어영문, 독일학 일어일본, 영어중문	100%
이 과	수학, 화학, 통계학, 물리학, 반도체과학, 생물학	100%
법 과	법학	200%
사회과학	정치외교, 행정, 경찰행정, 사회, 복한학,	200%
경 영	국제통상학, 경영학, 정보관리학, 광고학, 회계학	100%
생명자원과학	식물자원학, 산림학, 생명공학, 생명자원산업유통, 식품공학	100%
공 과	전자공학, 전기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100%
정보산업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정보시스템	100%
사 범	국어교육,역사교육,교육,지리교육, 수학교육,가정교육,체육교육	100%
예 술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연극, 영화영상	100%

* 최대배정 비율은 학과별 기준정원에 대비한 것임.

교 무 처

달하나 천강에

학생회 선거를 보며



김 무 봉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입동을 지나면서부터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고 있다. 교정을 노란 색으로 물들이던 은행나무는 성장을 벗었고, 잎들을 떨어버린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자세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스산한 바람이 종종걸음을 치게 한다. 그 바람 사이로 또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는 해를 정리하고 오는 해를 준비하는 발걸음으로 교정이 부산해진다. 학술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크고 작은 행사가 줄을 잇는다. 어떤 행사는 조용하게, 어떤 행사는 떠들석하게 각각의 성격에 맞는 규모로 한바탕 바람을 일으킨다.

학생자치기구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11월이 되기가 바쁘게 교내 곳곳에 선거를 알리는 벽보와 현수막이 나뉜다. 저마다 후보로 나서서 된 이른바 '출마의 번'과 자기 소개에 열을 올린다. 학교 전체가 잠시 활기를 띤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고, 그 과정을 '축제'라 하였던가. 대학에서의 선거는 과정의 순수함과 발상의 기발함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선거가 구성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극히 일부만의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불러 일으킨다. 구성원들의 무관심은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냉랭하다. 물론 상야담의 선거가 시정의 선거관처럼 소란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은 저조하고,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별로 신명나 보이지 않는다. 한 후보만이 나서거나 후보가 없어서 선거를 연기하는 단과대학도 여럿 있는 것 같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거나 바꾸어 보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려할 만한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만 탓하고 있을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은 자치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일꾼들은 왜 구성원들에게 외면 당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앞에 겸손하자. 그러한 진지한 성찰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일꾼들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독립문화, 당당하게 날개를 펴라

대안 모색·개선 의지 ... 주류의 상업성에 맞서는 계기될 듯

최근 주류문화의 흐름에서 탈피, 작가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 내는 독립문화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독립문화에 대한 정부의 미미한 지원과 시민들의 무관심이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 22일 홍익대학교에서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영화, 만화, 음반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술결'로 잘 알려진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서동진(문화평론가·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씨와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씨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서동진씨는 '한국 독립문화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90년대 독립문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전문가적 날라리"라며, "독립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문화를 가능케 하는 문화적 생태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동연씨는 "독립문화의 도약을 위해서 독립문화



토론회에 참석한 독립문화 관련 인사들.

에 대한 꾸준한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조직의 체계 조정,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작업, 다양한 독립문화센터의 건립, 독립문화를 지원하는 독립운영기금 체계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제자들의 주장은 독립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와 독립문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며, 독립문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발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발제내용에 대한 토론자들의 생각과 함께 실무자들이 독립문화를 이끌어가고 행사를 진행하는 현

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씨는 "스크린쿼터 운동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사이 급성장한 보호받지 않아도 될 거대 상업영화"라면서 "한국의 독립영화를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은 보이는 것이 스크린 쿼터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희균(인디레이블 기획자)씨는 "인디음악에 대한 가십성 언론이 인디레이블 전체를 죽이고 있다"며, "스타시스템에 의해 주도되는 소비자의 획일화된 입맛과 잘못된 거래 관행이 이러한 사안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주류의 거대한 스케일과 상업성에 밀려서 점점 외면당하는 비주류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독립문화가 당당한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독립문화는 날개를 펼친 것이 아니기에 희망이 있다.

지속적인 대안모색과 당당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독립문화가 당당한 문화의 주류로 자리잡는 것도 멀지 않았다. 좀 더 내실있고 당당한 독립문화로 날개 펼칠 날을 기대해 본다.

표은영 기자
pisk20@dongguk.edu

통일운동가 문익환 바른 평가 이뤄져야



고 문익환 목사 추모앨범 '뜨거운 마음' 관련 사진의 일부.

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지난 6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경의선 철도 복원 등 일련의 현상들은 한반도가 통일에 성큼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 흐름을 반영하며 통일맞이 움직임이 한창인 요즘이지만 10년 전 남북보다 한발 앞서 통일을 준비한 이가 있다. 바로 통일 운동가 늦봄 문익환 목사이다.

문목사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 선 재야인사로, 89년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19개월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또 94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철거민, 노동자의 인권을 외친 인권운동가이기도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남측 연합제와 북측 연합제 간의 공통점을 인정하여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키자'는 것을 비롯한 많은 논의들이 이미 89년 문목사가 북한을 방문해 이끌었던 '4.2 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이다.

그래서 매년 문목사가 타계한 기일을 맞이하여 추모행사가 열렸으며, 특히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이것은 문목사가 이루어 놓은 통일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며, 각종 언론매체가 왜곡 보도한 문목사의 모습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년 전 발표된 총 12권의 문익환 전집과 지난 달 금강초 선상에서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나 문목사의 일곱 번째 기일에 맞춰 제작된 예정인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도 이러한 맥락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현정 앨범 '뜨거운 마음'을 발매했다. 이 앨범에 수록된 총 11곡 중 9곡이 문목사의 시에 민중음악 작곡가 류형선씨가 곡을 붙인 것이다.

앨범 첫 곡 '오늘 내가 디딘 자국은'은 눈오는 별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발자국을 남기지 말라는 내용으로, 평소 그가 가슴에 새기고 다녔던 이야기이다.

또한 '이 작은 가슴'이란 곡은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로 통일에 대한 갈망을 노래해 애뜻함을 한층 더 표현해주고 있으며, '비무장 지대'는 우리 가락을 붙여 분단의 서글픈 감성을 노래한다.

이처럼 문목사 추모앨범 '뜨거운 마음'은 서정성과 사회성이 잘 조화된 음반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수익금 전액이 북한돕기와 통일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통일운동가 문목사의 현정 앨범은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음반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문목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관심이 곧 통일을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오이소, 보이소, 즐기소”

술직·건강한 기숙사 축제 ... 올바른 대학문화 선보여

'두근두근 ... 조심조심' 생활관 오픈 하우스에 초대받은 기분은 신혼 첫날밤 신랑 신부의 신방을 몰래 훑어보는 느낌이다. 경주캠 금강생활관은 남동 생활관과 여동 생활관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고 '추남추녀(秋男秋女) 가을 문화제'를 마련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남·여 생활관이 공개되고 그 안에 '작은 문화'를 선보인 것이다. 생활관을 엿보는 재미는 신비 속에 폭포 숨겨져 있던 세상을 구경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다. 바로 설레임과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흔히 생활관을 알다가도 모르는 '동네'라고 한다. 이 곳은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구파와 창문 아래로 줄을 연결해 치킨과 피자를 주문하는 과자들이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방탕으로 엮어진 생활관 커플은 '다레일'에서 데이트를 즐기

도 한다. 이처럼 생활관에서 만들어진 작은 문화가 가을 문화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가을남자와 가을여자의 가을 축제는 금강생활관을 뜨겁게 달구었다. 남동 식당에서 영화 △브레이크 하트 △퀵 위 댄스 상영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 남동 앞마당은 노래자랑 열기가 이



기숙사 축제에서 벌어진 노래자랑 한마당.

어졌다. 그리고 한밤 중 펼쳐진 나이트 타임 생활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가을 문화제를 준비한 윤준일(회계3)은 "생활관에도 특별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발굴하고 가꾸는 문화만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지금 대학 문화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관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시도된 새로운 문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어쩌면 일상을 통한 문화 표현이 대학문화를 가장 솔직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생활관의 작은 문화축제가 대학문화에 활기를 가져오는 징검다리라 될 것으로 믿는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매체비평

- 도서 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감동스럽다고?"

하지만 너무 빠져들지는 마!"



대표적인 '어른들을 위한 동화' 들.

지금 내 앞에는 네 권의 책이 놓여 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 3권과 안도현의 '연어', 정호승의 '항아'

리'이다. 이 책들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을 때, 책장의 한 칸이 모두 이렇듯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웬만큼 유명하거나 잘 나가는 책이 아니면 갖다놓지 않는 도서관의 생리를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차갑고 각박하다고 여긴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성인을 위한 이런 동화종의 이야기들은 과연 차갑고 각박한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가? 그 감동은 어떤 감동일까?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상업화되어 왔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란 손수건'을 읽었고, 중학교 때 보았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표지 이야기는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으며, 지금도 시청자가 사연을 보내는 라디오의 프로그램에서는 심심찮게 웃잔 등이 정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사람의 순수함과 호의를 믿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며, 사소한 일상 이야기로 귀중하고, 사람은 겸손하고 제분수를 아는 한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가족이나 연인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기로 하자.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이런 책들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 '진실'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이며, 가족의 세계이고,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굴면 더 큰 것으로 보답받는 세계이다. 또한 그 세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떠받들어지는 매저기스틱한 세계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굳이 문화비평가나 문학사회학자의 분석을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분리 속에서 세계와 자신의 합일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은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영웅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남은 출구는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 뿐이다. 그러려니 가족은 신비화되고,

사람은 세계의 처음과 끝을 결정할 만한 중대무쌍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뭐가 중요하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합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책들은 일종의 약과 같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어떨 때는 닭살이 돋는다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린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잠시라도 진정한 역할을 하고 위안을 준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송경아 소설가

자비의 땅 티베트,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중국의 탄압받는 달라이 라마 ... 자비로운 불심으로 인권유린 맞서

올해 한국의 매스컴에는 달라이 라마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사진을 통해서 달라이 라마의 모습을 보았을 뿐, 그분이나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서양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질문명에 식상한 서양인들이 오지의 나라 티베트에 대해서 신비스런 환상을 기대하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달라이 라마라는 종교계 스타에 대한 관심 때문일 거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요소만으로 티베트 불교가 서양에 정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경건한 시작

지금 서양에는 티베트 불교센터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서양의 티베트 불교센터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법당을 짓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여느 가정의 넓은 방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법사에게서 강의를 들으며 함께 수행을 시작한 센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신비한 불교의식이나 인기스타에 대한 관심 때문에 불교수행을 계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양인들이 티베트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수행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다.

왜 행복을 믿는가? 어떤 이들은 노예 같은 심정으로 종교에 복종하고, 어떤 이들은 거지같은 마음으로 종교에 매달려 복을 구걸한다. 그런 심정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들은 사업을 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종교는 부패를 낳고,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티베트 불교가 환영받고 있는 것은 나눠주는 종교, 평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명상을 하더라도, 티베트 불교에서는 내안의 불성이 관세음보살로 나타났다고 상상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보살피고 자비심을 베푸는 명상을 한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불성이 관세음보살들로 나타나서 모두가 세상을 보살피고 자비를 베푼다고 상상하니 우열없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기쁨으로써 내 스스로가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 자비로 중생 돕는다

티베트 불교의 모든 수행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된다. "어머니인 모든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려는 목적 자체가 중생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수행자 자신에게 되새기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모든 수행은 자비심과 보리심과 공성을 이해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이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 완전한 행복이겠지만, 그 목적을 향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수행의 단계들을 기초부터 밟아가면서 수행자는 자신의 의식이 향상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래서 서양인들이 티베트 불교 수행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를 만날 권리

이 해 가을에 우리는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었다.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허가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 불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무지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압력을 무시하면 무역자 찰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가 방문하는 나라에는 어느 나라에나 압력을 가했지만, 방문이후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못했다.

중국대사의 오만한 발언에 지레 겁을 먹고 당당하게 주권행사를 못하는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중국과의 마찰로 끊어죽게 되어도 문화주권 내세우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성인 달라이 라마를 모시려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서 독립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를 미국의 지지를 받아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첩자라는 등의 발언을 한 중국대사를 보면 공산당 일당 독재의 치하에서 세뇌 받은 중국인들의 정신상태를 짐작하게 되어 차라리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우리 사회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고 자비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행복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남의 발목을 잡지 말고 일어서서 같이 뛰어라!

주 민 황 인도철학과 강사



고수가 권한다

김 의 창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제 대학졸업장이 경제적 부를 보장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책은 투자와 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인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 관계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돈벌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개인의 부와 사회경제적 부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 사론 레흐트 저/형선호 역/ 황금가지/ 정가 9천원.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펼쳐지는 남북 병사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분단의 아픔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와 '초코파이'가 떠오르는 올해 최고의 흥행 대작으로, 남과 북 사이에 놓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며 수수께끼로 가득 찬 네 병사의 비밀일기가 숨겨져 있다. 송강호, 이병헌 주연/ 박찬욱 감독/명필름 2000년작.

아이러브스쿨



"아이러브스쿨은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사이트로 옛 추억을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기쁨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문제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정' 문화를 바탕으로 동문간의 정서적 유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국내 최고 인기 사이트, 학창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아이러브스쿨에서 되살아난다. www.iloveschool.co.kr/ 문의 080-050-0852

조성모 3집



"겨울의 문턱에 선 지금, 찬바람을 뚫고 전해오는 조성모의 잔잔한 발라드 음악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미소를 가지고 능숙한 고음처리를 선보이는 조성모의 세 번째 앨범. 타이틀 곡 '아시나요'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난 사람을 그리며 눈물짓는다는 내용이다. 도레미레코드사/ 정가 1만2천원.

미디어로 보는 티베트

큰 돈 - 중국이 티베트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종교는 독이다' 달라이 라마를 만난 마오쩌둥이 미소 띤 얼굴로 독설을 내뱉는다. 14대 달라이 라마의 일대기와 억압받는 티베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 '쿤둔'의 한 장면이다. 영화 쿤둔이 보여주고 있는 티베트의 과거와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영화는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티베트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상황부터 시작된다. '티베트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

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티베트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일본에 의해 주권을 유린당하던 때와 닮아 없다. 국제정세 속 혐의의 논리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것까지도 흡사하다. 영화는 시종일관 달라이 라마와 종교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쿤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일 것이다. 티베트의 유린된 인권과 주권을 되찾는 날, 돌아가지 못한 달라이 라마를 이야기하는 영화 '쿤둔'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그려질 수 있길 기대한다.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 잠, 꿈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최근 달라이 라마 방한 여부를 둘러싸고 티베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춰 인간의 몸이 마음에서 분해되어 다른 영역으로 통하는 '잠'과 '죽음'의 두 통로에 대해 달라이 라마와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이야기를 담았다. 인간 행복의 지표는 더 이상 과학 발달에 따른 물질문명의 풍요가 아니라,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 행복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라 말하고, 명상의 여러 종류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 주고 있다. 뇌와 수면과의 관계, 꿈과 무의식, 자각몽, 인사 체함을 포함한 죽음의 문제 등을 다루며, 현대 과학과 티베트 불교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현대과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 역시 현대과학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받아들여 불교의 수행법을 좀더 보편화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프란시스코 비렐라 편/이강혁 역/예류/ 정가 9천원.

메아리

아마존의 반란

▲아마존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적인 습지대이다. 일년 내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청난 열대우림과 천연자원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탐험영화의 배경이나 '오지를 찾아서' 같은 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요즘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닷컴' 기업의 원조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으로 불려지는 것에 더 익숙하다. 비야호로 21세기 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은 웨스트리프에서 해지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던 서른살의 샬러리맨 제프 베조스가 창고 하나를 빌리고

전 재산인 1백만 달러를 투자해 시작한 기업이다. 그러나 이제 아마존은 5년만에 인터넷 업계의 신화로 군림하고 있다. ▲'아마존닷컴'은 인터넷으로 책을 판매한다는 획기적인 시도뿐 아니라,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정보사회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종업원들이 모두 스톡옵션을 가진 주주로 활동하고 있고 능력에 따른 승진의 기회도 보장해 주는 신경제기업의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

다. 그러나 지금 신경제기업의 완벽해 보이던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침단기술 근로자는 노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창조했던 '아마존닷컴'에서 노조결성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의 노조결성은 정보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잃어가리라는 예상을 뒤엎은 사건이다. 이에 미국의 각 인터넷 기업들은 '아마존의 반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마존을 연구하는 어떤 지리학자는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난파된 배'라는 뜻의 고대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마존이 주가폭락과 감원에 따른 종업원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채 노조를 허용한다면 '아마존닷컴'이 신경제기업이라는 난파된 배의 선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신 문화부장 funny@dongguk.edu

짧은 소식

학교안에서

A-jax 정기공연



서울캠 연합동아리 A-jax가 정기공연을 갖는다.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드림콘 타악의 '늑대와 여우', 이현도의 '불의 춤'에 맞춰 창작인무를 선보이며,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오는 30일,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6-857-6858 (고현숙)

아리랑 정기공연



서울캠 중앙노래패 아리랑이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세상을 바로 보자'는 의미의 '본다', 교실이데아를 개사해 학원사주화운등을 노래한 '개자' 등 총 14곡의 민중가요를 소개하며, 영상물을 통해 좀더 가까이 민중가요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달 1일, 6시. 분관 중앙당에서. 문의 017-870-7749 (최낙혁)

디딤돌 영화제

서울캠 영화 공동체 디딤돌이 '가을 영화제'를 연다. 이번 영화제는 부천영화제에서 상영된 디지털 영화 '너무 많이 본 사나이'를 비롯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영화 위주로 상영한다. 27일 바람의 점심(11시), 링(1시30분), 기쿠치로의 여름(4시), 너무 많이 본 사나이(6시30분). 28일 너무 많이 본 사나이(11시), 아드레날린 드라이브(1시30분), 학교괴담(4시), 링(6시30분). 29일 아드레날린 드라이브(11시), 아이즈 와이드 샷(1시30분).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1-581-6526 (박성호)

광고 전시회



"광고, 이젠 귀로 즐기자" 서울캠 광고 동아리 AD-RUSH가 '2001년도 MPMAN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테마로 광고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MP3에 관한 광고를 주축으로 귀로 즐기는 새로운 광고형태를 제시한다. 전시회 =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문화관 동국갤러리에서. 경정 P.T. = 오는 29일, 1시부터 4시까지.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문의 016-702-4540 (김유광)

영상사진 예술연구회 사진전



경주캠 영상사진 예술연구회에서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과 현실 생활을 담아낸 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이며, OB선배들의 사진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영상인들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25일부터 30일까지.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문의 (054)770-2780

하늘·땅·사람들 정기 전시회



경주캠 중앙 그림패 하늘·땅의 사람들에서 '정기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는 '죽음으로의 여행'을 테마로 진행되며, 인간의 소화기간을 대비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낸 6 작품을 통해 예술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문의 (054)770-2783

학교밖에서

세익스피어 영상 창작제



한국 세익스피어 학회는 내년 5월에 있을 '서울 세익스피어 페스티벌'을 맞아 영화에 참여할 배우와 참가자를 모집한다. 형식과 자격조건에 제한은 없으며, 학과장이나 담당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2인1조의 팀 중 15개 팀을 선발, 8주간에 걸친 영화제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다음달 13일 지원·추천 마감, 23일 참가작 발표. 문의 577-2894 (서울필름 아카데미)

책 소개

장호 시 전집



등산에 관한 종합적인 교양을 지녔던 한국 최초의 알파니스트이자 학자, 시인이었던 장호(본명 김장호) 시인의 유고시집. 장호 시인은 5,60년대 '나는 산으로 가야겠다', '한국 명산기' 등 산에 관한 수필을 남겼으며 '산경표', '대동여지도' 등 문학적인 글귀로 한국의 산을 새롭게 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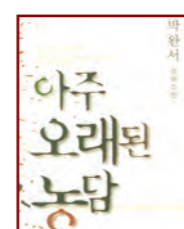
본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지난해 뇌졸중으로 타계한 장호 시인의 유고 시집은 그가 일궈낸 시와 시극의 세계를 흠모한 후학들에 의해 전집(2권)으로 묶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김장호 지음/베를북 펴냄/전2권/각권 1만 5천원

외판방



95년 2권으로 출판되었던 작품을 작가의 해설을 덧붙여 한 권으로 묶었다. 서정적인 문체 구사로 '시적'인 소설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 신경숙의 외판방은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픽션화했다는 점과 90년대 암울한 사회분위기를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으로 주목받아온 작품이다. 현재의 '나'와 16살부터 20살까지의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판방은 부모, 형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대면과 솔직함과 진한 감동으로 가득차 있다. 신경숙 지음/문학동네/정가 9천 5백원.

아주 오래된 농담



자기의 병명도 모르는 채 환자는 죽고, 그 친척들은 장례모습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다년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느라 바쁘다. 인간의 생명과 애정 그리고 진실이 자본의 위선 앞에서 얼마나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불혹의 나이에 등단해 고회를 맞은 작가가 걸은 삶의 연륜만큼이나 우리네 삶 속의 부조리를 '예전부터 있어왔던 농담'이라며 풀어낸다. 지난 일년간 실전문학에 나누어 연재했던 장편을 소설로 묶었다. 박원서 지음/실천문학사/정가 8천원.

불혹의 나이에 등단해 고회를 맞은 작가가 걸은 삶의 연륜만큼이나 우리네 삶 속의 부조리를 '예전부터 있어왔던 농담'이라며 풀어낸다. 지난 일년간 실전문학에 나누어 연재했던 장편을 소설로 묶었다. 박원서 지음/실천문학사/정가 8천원.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



짧은 우화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잔잔한 이야기가 책을 읽는 내내 펼쳐진다. 스니프와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 두 마리와 햄·허라는 꼬마인간이 미로를 헤쳐나가며 치즈를 찾는다. 주인공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스펜서 존스 지음/이영진 번역/진명출판사 펴냄/정가 7천원.

동아리 탐방

몽게구름처럼 음악이 피어오르는 곳

순수 창작곡 발표... 오디션·교육 통해 기초실력 다져

학생회관 3층 복도를 지나다 보면 언제나 어김없이 음악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 음악에 흠뻑 빠진 사람들의 모임 '몽게구름'이 바로 그곳이다.

본교 유일의 창작음악 동아리 몽게구름은 지난 91년 통기타 동아리로 시작해 차츰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곡을 창작하는 등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2회에 걸친 오디션을 통해 음악에 남다른 관심과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회원으로 뽑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게구름 회원이라면 최소한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파트별 교육을 실시해 수준 높은 곡을 창작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몽게구름은 일년에 두 차례, 매 학기마다 정기공연을 갖는다. 기존곡을 위주로 한 공연과 순수창작곡을 발표하는 공연이 그것이다.



지난해 중앙당에서의 정기공연 모습.

올해도 1학기 정기공연에 이어 지난 24일 분관 중앙당에서 '제15회 창작곡 정기공연'이 열렸다. 발라드와 댄스곡이 주류였던 예년과는 달리 랩곡이 추가된 이번 공연은 몽게구름의 끼와 실력을 자유롭게 개성 넘치는 무대로 소화해 냈다. 특히 이정삼(토목94)군의 '무사인'은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는 주제를 담은 곡으로, 랩과 보컬이 잘 어우러진 노래로 평가받

았다. 또 몽게구름 활동에 발판으로 최근 박화요비와 박효신의 곡을 작곡, 프로 무대에 데뷔한 박재삼(화학93)씨의 '몽경'도 아름다운 선율로 주목을 받았다.

98년 송은주(식공95)씨가 '복작성실'이란 곡으로 대학가요제 본선에 진출, 타 대학 동아리와 함께 '동창회'라는 창작곡을 발표하고, 올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주최의 '서울시민문화한마당'에 참가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몽게구름.

표절문제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몽게구름의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애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래창작에 대한 관심과 끊임 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앞으로도 젊음의 활력과 개성 넘치는 몽게구름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취업길라잡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점차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21세기이다. 취업을 위해 취득해야할 자격증도 해야할 수 없고 자격요건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업은 전문인력을 원하는데 어디 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알답하기만하다.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내건 아카데미의 수강생 모집이 활발하다.

MBC 아카데미 문화연출학부수강생 모집

MBC 아카데미는 제19기 문화연출학부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기획자는 공연기획과 같은 문화산업의 휴먼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C.O.(Culture Organizer)와 호텔이나 리조트, 유람선, 테마파크 등 현업에 투입되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실현하는 G.O.(Gentle Organizer)로 나뉜다. 관광한국을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의 관광산업 육성책으로 현재 문화기획자의 인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화 관광부나 관광공사의 행사를 더 전문적으로 기획할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MBC 아카데미에서는 광고, 홍보, 판촉, 연출, 기획(상품기획), 등의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 문화기획자의 역량을 키우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413-4314



VIEW FINDER DONGGUK

시간의 언덕... 정문에서 시작한 새천년은 이제 상록원에서 서서히 저물어간다. 늦가을 단풍의 넉넉함이 모든 동대인의 가슴에 깃들기를... 촬영=송광수 동문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Price. Items include 갈비탕(700), 생협창립기념일, 부대찌개(1300), 등수육백반(1500), 오징어떡볶음(1500), 소고기버섯찌개(1500), 제육덮밥(1500), 비빔밥(1300), 사골곰탕(1500), 생선가스(1300), 참치비빔밥(1500), 감자탕(1500), 순대야채볶음(1300), 양념통닭(1500).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Price. Items include 육개장(700), 부패(3500), 불고기백반(700), 원장짜개백반(3300), 설렁탕(1500), 소고기전골(3300), 생선탕수육(1500), 들술비빔밥(3300), 짬뽕(1500), 순두부찌개(3000), 차킨볶음밥(1500), 개장백반(3500), 돈시태찜백반(1500), 초밥우동(3800), 고구마비빔밥(1300), 오징어탕수(3300), 돈육꽃고추찌개(1300), 원자전골(3300), 참치회덮밥(1500), 돈가스(3300).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의 회원모집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0 끼장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로 뚝친 정춘을 만나보세요. (연말결산)

우정출연

Fearless dawn(록밴드) 몽게구름(창작음악)/아리랑(노래패)

축하공연

손재현 무용단의 발레 -지젤, 카르멘 어린이 댄스팀 (중구 흥인 초등학교 외) -차차차, 자이브, 룸바, 뽕바시뽀

문의 : 2260-3056 (여학생실)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Price. Items include 호박고추장찌개(1300), 콩나물국(1300), 햄야채볶음밥(1600), 해물덮밥(1800), 제치국(1300), 냉이된장국(1300), 돈가스(1500), 불고기덮밥(1700), 아육국(1300), 미역국(1300), 김치볶음밥(1600), 낙지볶음덮밥(1800), 사골우거지국(1300), 배추국(1300), 카레라이스(1500), 생선가스(1800), 달래된장국(1300), 김치국(1300), 오징어덮밥(1600), 설렁탕(1800), 쇠고기콩나물국(1300), 돈육덮밥(1600), 물국수(900), 북어채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물국수(900).

경원대학원 경영환경 특강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상과 과제 일시 : 28일 (화) 오후 7시 장소 : III 세미나실(문화관 2층) 강사 : 박상규 국회의원